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기쁨으로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이번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말들아 나를 위하여 돌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주 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8-29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29호 2013년 4월 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카운트다운!



이번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는 성지순례와 함께 개최된다. 사진은 한국에서 열렸던 27회 세미나 참석자들.

4월 9일(화)-18일(목) 라마다 예루살렘 호텔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가 4월9일부터 18일까지 예루살렘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다.

본 세미나는 매년 본지(발행인 장영춘 목사) 주최로 미국은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등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8회를 맞고 있다. 특히 올 세미나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짐에 따라 세미나 후 성지순례까지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감동과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어로 개최되는 본 세미나의 주강사는 김성길 목사(서울 시온교회), 김중준 목사(서울 꽃동산교회),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이며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황의영 목사(SBM 대표), 천성덕 목사(개나나 대회장), 이영섭 목사(불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김승천 목사(풍년교회), 김만형 목사(진구교회), 김해천 목사(뉴욕빌라델비아장교회), 김준식 목사(김제중앙장교회), 김주경 목사(AMNOS미니스트리 대표)가 각 색 선별 강연과 설교를 맡는다.

본 세미나 주제로 삼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는 신명기 6:4-9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보며 2세대를 믿음으로 교육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수해줘야 할 크나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은 청교도 신

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지만 지금 9개 주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동성결혼’을 금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켄터키 주까지도 동성결혼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크리스천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얼마 전 LA를 방문한 한반도 평화와 동성결혼 입법화 반대를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은 “한국에서도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동성결혼 입법화가 긴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미주를 비롯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뜨겁게 기도해줘야 할 때”라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말씀에 위배되는 심각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세태를 보며 교계 지도자들과 모든 크리스천들은 말씀으로 재무장돼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사기임을 재천명하며 신명기의 말씀으로 세미나를 준비했다.

금번 세미나는 2박3일간 진행될 집중세미나에 이어 올리브동산, 사해바다, 마사다,

쿠파탄, 갈릴리 바다, 가이사라, 갈멜산, 엘림산, 엘리골짜기 등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게 된다.

한편 성지순례에 앞서 경건회와 당일 순례할 성지 세미나를 준비해 성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매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윈즈장로교회 원로)는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주제부터 시작해 강사교섭, 장소선정, 비용 등 정말 몇 달은 밤잠을 이룰 수 없지만 각처에서 사역으로 지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참석해 영적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다음 해를 구상하게 된다”며 “이번 장소가 예루살렘이라 다른 해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참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목회자들의 사정을 접하고 윈즈장로교회와 공동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후원하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더 많이 모실 수 없어 안타까움이 많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성자 기자)

동성결혼, 창조질서 거스르는 판결

미언론, 미연방대법 동성결혼심리 따른 해석과 향후판결 파장 전망

“결혼이 남자와 여자사이의 결합이라는 사실은 지난 2000년 넘게 이어진 전통이지만 동성결혼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의 역사보다도 짧는데 연방 대법관이 동성결혼의 합헌, 위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26일,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8을 심리한 보수적인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의 말이다. 이처럼 역시 보수적인 안토니 스칼리아 대법관도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보수적인 진영은 말을 아끼기면서 신중하게 이번 심리에 임했지만 반대로 5명의 진보나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은 시대의 흐름, 즉 미국인 중 60% 이상이나 찬성하는 동성결혼에 사법적 인정을 해줄 전망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8 심리를 취재한 기자들은 연방 대법관의 개인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법관들은 동성결혼 합헌, 위헌 판결을 내릴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여론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문화전쟁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확신되고 있는 동성결혼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 라는 진지한 물음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언론은 숨가쁘게 지난 한 주 동안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따른 보도와 해석을 다루면서, 오는 6월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판결이 적법한 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성결혼 진영은 이미 승리를 따낸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시사전문 주간지 ‘타임’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지로 발행됐기 때문이다. 한 표지에서는 두 남자가, 다른 표지에서는 두 여자가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두 표지에는 모두 ‘동성결혼은 이미 승리했다(Gay Marriage Already Won)’라는 같은 제목이 달려 있다. 2010년 약혼한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표지 속 두 남자의 희망은 자녀들이 ‘두 아

빠가 결혼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40대의 두 여자는 7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1년 뉴욕 주에서 법적 부부가 됐다. 타임은 이 두 개의 표지를 발행하기까지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다. 표지 사진이 센세이셔널하고 노골적이라며 반대한 이들이, 동성부부의 입맞춤이 아름다움과 사랑을 보여준다고 주장한 찬성론자들에게 밀려 두 개 표지의 잡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알림: 본지 주최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와 함께 개최됨에 따라 다음 2주간은 신문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면

성경적 진리에 우뚝 서서 결혼 강화하라



3면

무슬림형제단, 거부장적 견해 피력



7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3)



13면

인터뷰 - 김진하 목사(예수사랑교회 담임)



13면

선교지 탐방 - GMI선교사관학교 이종식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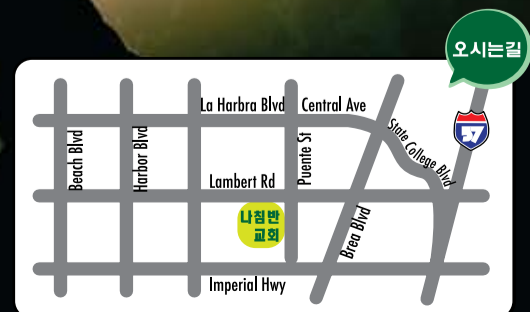
Since 1999
HYM
남기주청년연합회
www.hym.cc

행함이 있는 믿음

What use is it, my brethren, if someone says he has faith but he has no works?
Can that faith save him?
[James 2:14-26]

Faith with Works

일시: 2013년 4월 13일(토), 14일(주일) 오후 7시
장소: 나침반교회
강사: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
후원: OC 교회협의회



HYM: T 714.393.5135(Douglas Kim 대표), 323.459.9832(전정하 목사)/hym21@hotmail.com
나침반교회: T 562.691.0691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 http://nachimban.org



시론

소통 매체 사용의 예의와 배려



원중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인간에게는 동물의 단순한 소리 언어 전달방식과 차원이 다른 언어 체계가 있다. 이것은 계속 발전해왔으며 각국의 고유한 자연언어 외에 인공언어 개발에 이르렀다. 인위적으로 만든 세계어 에스페란토(Esperanto)나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는 물론, 현대의 컴퓨터언어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중 컴퓨터 언어의 역할은 지대하다. 가상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광범위한 IT기술발전으로 소통의 장을 다양하게 열어놓았다. 하지만 모든 발전에는 역기능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소통수단이 사용자 수준에 따라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통적 우편에서 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SMS 그리고 SNS에 이르기까지 소통매체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뒤따라주어야 한다. 핸드폰이 처음 대중화되었던 시절, 버스나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던 진풍경에 씁쓸했던 때를 생각하며 소통매체를 잘 사용하는 매너를 생각해본다.

먼저 시차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무료 서비스 어플이 있다. 이 덕분에 무료채팅은 물론 무료 전화, 나아가 무료화상통화까지 즐기고 있다. 값비싼 국제전화비 때문에 어쩌다 안부 묻고 살던 시절에 비하면 조석으로 안부 묻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내 반가움에 상대방의 시간을 몰라 시 때도 없이 문자도착음이 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고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단잠을 자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활동하는 시간이라 해도 연달아 울리는 카톡도착알림 소리는 옆 사람을 불편케 한다. 물론 진동설정도 있고, 나아가 시간별로 전화기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어플도 있지만 핵심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한국은 물론 동부와 서부 사이에도 시차가 있는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둘째, 대량이메일에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메일은 편리한 소통의 도구이다. 대량이메일이 더욱 그렇다. 하나의 알림 내용을 동시에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으니, 넓고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공해가 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상업성 이메일이 받은편지함을 도배하는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메일이 날마다 들어온다면 공해가 틀림없다. 물론 대량이메일의 경우 대부분 수신 거부 안내가 있다. 하지만 한번의 수고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편리함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좋은 정보제공이나 전도처럼 아무리 좋은 목적이더라도 대량메일에는 보내는 사람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수신과 관련된 배려는 물론, 메일주소수집이나 관리도 건전해야 하며, 보내는 이메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전적인 우편의 심각성도 있다. 향수가 생길 정도로 우표 붙은 메일이 적은 오늘날, 쏟아지는 광고터미 속에 담긴 편지봉투는 반갑지만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내는 공문서로서의 대량우편은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적이거나 각종 정치적 성향의 전단지 같은 수준, 심지어 블랙메일 수준의 내용들은 우편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를 떠나 불쾌하게 그치지 않는다. 이런 우편은 수취 거부제도도 통하지 않고, 관계없는 글을 보낸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도 없기 마련이다. 겉봉을 뜯어보고 난 뒤에야 어떤 내용의 우편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여전히 명분일 뿐이다. 단체마다, 수집된 회원주소를 통해 각종 우편을 사적, 집단이 기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각종 내규나 법률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어찌, 현대적 소통매체의 단점만 있겠는가? 허다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좋은 점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역기능 적인 면을 줄이거나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각종 소통매체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사생활보호 차원의 통근 배려도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의 법적 구속력을 따지기 전에 좋은 단체,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책임있는 상호협력의 자세가 더욱 아쉬운 때이다.

성경적 진리에 우뚝 서서 결혼 강화하라

CT, 연방대법 동성결혼 합법화 후 교회공동체가 해야 할 일 소개

연방대법원 동성결혼심리에 따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 문화의 정체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수도 있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주재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결혼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약 80분간 이 법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또한, 27일에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정의한 연방결혼보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쯤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지를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쟁점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정부가 결정한 결혼법을 연방정부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법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다. 전반적인 관측은 이번 판결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여론 수렴 등을 해야 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동성결혼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동성결혼'은 이제 거스르기 힘든 사회적 흐름이자, 문화적 유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데이(CT)는 만약 동성결혼이 법적 정당성을 받게 된다면 교회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진지하게 제안하고 있다(If the Supreme Court Legalizes Same-Sex Marriage, What Next? How churches and pastors should respond). 바로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결혼을 강화시키고,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한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을 종교적 시각이 아닌 '소수자에 대한 평등'이라는 민권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받아들여야 훨씬 수월하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사회의 병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와 교회는 동성애 치유에 힘써야 한다.

1.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환영하고 받아들여라(Timothy Dalrymple, Patheos.Com 편집인)

2010년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13만1천 쌍의 동성결혼자들이 있고, 51만4천 쌍의 결혼하지 않은 동



(Edodie B Emig, 덴버신학교 교수, 뉴욕교회)

만약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게 되면 우리는 급변하는 문화나 법의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을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결혼은 평생 동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언약이라고 제정하셨다. 정치나 문화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확신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동성애자들에게 성경적인 결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악이고,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며, 돌아온 탕자를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몸과 말로 전해야 한다.

회개는 교회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현재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놀랄 정도로 포르노물이 범람하고 있고, 간음과 이혼율은 솟구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돌음 안에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이처럼 만연하는 집단 죄악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분위

성경 가르쳐야 동성애가 죄인줄 알고 회개 기회 가져 동성애자 받아들이고 전통결혼 긍정적 모습 보여야

성애자들이 있다. 한마디로, 미전역 어디에서든지 동성결혼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올해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인정되면 목회자들과 교회는 동성애자 혐오(호모포비아)에서 벗어나 이들을 복음에 필요한 죄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배척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복음에 접촉해야만 이들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복음을 통해 동성애에서 정상적인 이성간의 사랑으로 개종될 수 있고, 회개의 과정을 거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배척하고 멀리할 때, 오히려 괴리와 반목만이 가중된다.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

2. 결혼을 더욱 강화시켜라(Jim Daly, 포커스언더패밀리 회장)

연방대법원이 오랜 전통인 결혼의 정의를 반복하게 된다면 교회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목회자와 교회공동체의 부르심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을 희생하고 평생 동안 함께 하는 이성간의 결합이라는 성경적 결혼관은 이미 반문화적이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이 제도를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 그로인해 얻게 되는 유익들과 아름다움을 계속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주제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가정에서 주일학교에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갈수록 증가하는 이혼율을 저지할 수 있고 결혼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들을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

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 대법원이 그 같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진정으로 어둠과 같은 암흑 속에서 진정으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들어서게 된다.

3. 성경적 진리 안에서 신실하라

기 형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동성애 지지 쪽으로 흐른다면 세상은 거짓 진리에 속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어둠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사랑 안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기독교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무슬림형제단, 가부장적 견해 피력

뉴욕타임스, 이집트 정권 이슬람식 여성정책 논란 핵심 보도

중동에 일고 있는 소위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역풍이 불고 있다. 즉 이집트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실세 무슬림형제단의 이슬람식 여성 해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시절부터 여성은 남성에게 모든 면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의회를 장악했고 대통령을 배출해 이집트에서 집권 세력이 된 무슬림 형제단은 자신들이 오래 동안 유지해왔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견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보수적인 견해가 이집트에서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Muslim Brotherhood's Statement on Women Stirs Liberals' Fears).

무슬림형제단의 가족문제전문가 사라마는 최근 열린 가족상담가를 위한 세미나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남성이 통제하는 제도 아래 제

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집트의 여권 운동가들도 이러한 무슬림 형제단의 입장은 이집트의 많은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여성들의



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다면 남편이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아내에게도 30-40% 책임이 있다고 발언했다. 최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UN)이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무슬림형제단은 이 성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성폭행으로 고소할 권리가 없으며, 남편은 이러한 범죄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guardianship)이지, 동등한 동반자(partnership)는 아니며, 그 어떤 법도 아내가 여행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거나, 피임을 할 때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무슬림형제단은 천명했다. 더불어 무슬림형제단은 딸은 아들과 동등한 유산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무슬림형제단의 견해는 이집트 자유주의자

생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집트 모르시(Morsi) 대통령의 정치 보좌관인 엘 사카위는 이집트 행정부의 입장은 무슬림형제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guardianship)이지, 동등한 동반자(partnership)는 아니며, 그 어떤 법도 아내가 여행을 하거나, 사회 활동을 하거나, 피임을 할 때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무슬림형제단은 천명했다. 더불어 무슬림형제단은 딸은 아들과 동등한 유산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무슬림형제단의 견해는 이집트 자유주의자

대한 성명서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라는 내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내용 중 남편에 의한 아내 성폭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엘 사카위는 이 사항은 서구 사회에서 문제이며 이집트에서는 다른 형태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집트의 한 인권단체는 정부가 가정내 폭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내 폭력은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무슬림형제단의 가족문제전문가 사라마는 "여성에게 자유가 있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체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강하게 통제해야 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의 유산 상속권에 대해서 이슬람학자들은 아들이 딸보다 유산 상속의 권리가 더 많이 있으나 아들은 자신의 여성 형제를 재정적으로 돌볼 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라마는 가족상담가를 위한 세미나의 연설에서 유엔의 여성 폭력에 대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은 가족이라는 제도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이집트 사회를 이슬람 이전의 무지한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남편도 아내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의 유산 상속권에 대해서 이슬람학자들은 아들이 딸보다 유산 상속의 권리가 더 많이 있으나 아들은 자신의 여성 형제를 재정적으로 돌볼 의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사라마는 가족상담가를 위한 세미나의 연설에서 유엔의 여성 폭력에 대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은 가족이라는 제도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이집트 사회를 이슬람 이전의 무지한 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엘 사카위는 이집트 정부는 유엔이 발표한 여성을 향한 폭력에 의 혼돈은 멸망과 종말의 징조이고 가증한 것이다. 원래 성(sex)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여자 같은 남자도 지으시고 남자 같은 여자도 지으셨는데, 그것은 그의 풍성함이지 결코 당신이 만드신 성의 구분을 혼돈케 하심이 아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동성애자들끼리도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

(2면에서 계속) 아무리 긴 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밝은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성경적 진리 안에 머물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증거와 고백에 세상은 변하게 된다. 결론으로,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문화의 퇴락은 곧바로 성적 부분과 탐닉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은 동성애라는 편만과 성의 왜곡, 수교 등으로 이어졌다. 동성애의 편만과 성

의 혼돈은 멸망과 종말의 징조이고 가증한 것이다. 원래 성(sex)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여자 같은 남자도 지으시고 남자 같은 여자도 지으셨는데, 그것은 그의 풍성함이지 결코 당신이 만드신 성의 구분을 혼돈케 하심이 아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동성애자들끼리도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

의 성적 구분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괴상한 아이러니(irony)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도 하나님의 엄연히 존재하심의 바탕위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면서, 결혼의 유익을 보여주며 동성애자들을 교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공동체, 분명한 'NO' 표현해야

(1면에서 계속) 이런 과정이 보여주듯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가장 진보적 이슈로 평가된다. 개인적 선호, 사회적 용납이란 논의를 지나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까지 논쟁하는 진보의 속도가 가히 역사적이라 할만하다. 타임지는 '어떻게 동성결혼이 이겼는가(How Gay Marriage Won)'라는 사실적 제목으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동성결혼이 미국 사회 전반에 등장할 정도로 키워드 가 됐는지를 소개해준다. 동성결혼 소송이 처음 제기된 1970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뒤 70-80년대에 미국의 각 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거나 동성애 문제에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90년대는 언론, 예술, 광고 등 각 분야에서 동성애가 붓물처럼 튀어나왔다. 영화배우 톰 헝크스가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로 열연해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고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IKEA)는 동성애 부부를 광고에 등장시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동성애에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미국의 여론과 법은 한국 사회처럼 혼인을 일부일처제로, 또 부부관계를 남편과 부인으로 나눠 명시하길 더 원했다. 2000년대 공화당은 동성애와 낙태 등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보수진영을 집결시키고 보수정권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미국을 달군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위헌 심사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nation).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속화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들 자신의 정치적 성공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념이나 민주적 가치로서 평등권에 근거해 동성연애자들의 권익을 인정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이 결혼 대상으로 동성 파트너를 데려올 경우 흔쾌하게 이를 받아들일 부모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특히 이민가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 과연 동성애 문제가 실제로 삶의 주변이 됐을 때 이를 법이나 도덕적 논리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따라서 이번 판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전통적인 결혼과 동성결혼의 역사를 볼 때 장단점 등을 비교할 시간이 짧아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심리가 연방대법관들에게 미지의 바다로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 끝이 환상적일 지 낭떠러지일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론으로, 2013년은 동성애자 권익운동의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취임연설에 사상 처음으로 게이와 평등권이 언급됐는가 하면 권익투쟁이 시작된 지 반세기도 채 안됐는데,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장밋빛 전망 속에

"승리에는 반드시 대가 따르다" 동성결혼 지지자, 오바마 진영에 선포

신호였다. 위헌 심리 대상 중 하나인 동성결혼금지법은 캘리포니아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008년 주민발의를 통해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에는 국민정서법이 동성결혼을 불허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위헌 심리 대상인 연방 결혼보호법은 96년 재선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당시 동성결혼 찬성률이 27%에 머물자 표를 의식해 다수인 동성결혼 반대 여론에 가담한 결과였다. 그러나 언론은 이번 위헌 심리에서 나온 대법관들의 발언을 분석해 법적 논리로서 동성결혼은 합헌이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동성결혼 찬성이 처음으로 50%를 넘어 이제 국민정서도 합헌 의견을 따르고 있다. 정치적 감이 당대 최고인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발 빠르게 17년 전 자신의 결정을 공개 사과했다. 그리고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힐러리 클린턴까지 2016년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래서 분위기 상으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6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 6월은 아마 평등권이 도덕적 불쾌감에 최종 승리를 거두는 시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73년 처음 동성결혼을 금지했던 메릴랜드주가 올해 이를 허용한 것에 지난 40년의 역사가 응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노예폐지에 이어 동성결혼의 근거로 제시될 줄은 스스로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발행된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동성결혼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추세이자, 인종이나 성처럼 차별받아서 안되는 권리로 받아들이는 미국인들의 정서에 경고를 보낸다(Gender and same-sex marriage: Rank Discrimi-

연방대법원 심리를 마쳤기 때문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동성결혼'은 이제 거스르기 힘든 사회적 흐름이 되고 있다. 현재 동성결혼 합법화지역은 워싱턴DC와 9개주다. 뉴욕타임스의 여론분석가 네이트 실버는 2016년엔 32개주로, 2020년엔 44개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의 합법화여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문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정의를 변경할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성찰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미국 사회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규정하고, 또한 다수의 세금으로 사회와 후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소위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똑같이 도와주고 지지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공동체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한 'No'를 표현해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norm)의 하나'라고 가르치는 것은 마치 콩을 팔이라 부르는 예곡(perversion)이고 사회 유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죄악'이다. 또한 분명히 정치적, 사법적 세계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동성결혼 지지자들과 오바마 진영이 받을 수 있는 승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도 선포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역행하면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 심판은 이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언젠가는 인간의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35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총회 소집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Korean Presbyterian Overseas Church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총회산하 대회 및 노회 위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 35회 성총회가 미국 필라델피아 글로벌 한인장로교회(김바울 목사 시무)에서 2013년 5월 14일(화)~17일(금) 까지 개최됨을 알려 드리며 해외에 흩어져있는 예장(합동)목회자들이 하나가 되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회장/이응주 목사 서기/김영락 목사

환영위원장: 조도식 목사 준비위원장: 김경순 목사

총회연혁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산하 대회로 1978년 승격 출발하여 미국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에 흩어져있는 총신 출신들로부터 해외합동총회를 구성하고자 1996년 11월 5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나성엘림장로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창립예배가 윤철주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창립 총회장에 윤철주 목사, 2대 총회장에 박성만 목사, 3대 총회장에 조환목사등 이렇게 이르는 동안 본 총회의 전신인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대회이므로 해외합동총회로서는 17회이지만 지난 예장(합동)미주대회의 전신임을 감안하여 총회가 합산된 회수로 명시하기로 제11회 미국동부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결의하여 금번 35회 총회를 미주대회 필라델피아 노회 글로벌 한인장로교회(김바울 목사 시무)에서 개최하며 본 총회 산하에 30개의 노회가 있다.

일시: 주후 2013년 5월 14일(화)~17일(금)
 장소: 미국 필라델피아 글로벌 한인 장로교회
 Global Mission Presbyterian Church
 234 Ceder Rd, Elkins Park, PA 19027

연락처: T. 215-782-1117, 267-575-5617
 F. 215-782-1166

총회장: 070-8288-2176, 서기: 213-500-2327
 준비위원장: 267-575-5617 환영위원장: 610-304-4998
 미국 총회본부: 980-329-0060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까 칠 필라 샌드위치를 먹을까?

이제는 경제적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치관 전쟁"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선택!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까? 칠 필라 샌드위치를 먹을까?의 질문이 더 이상은 아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이 세대의 풍속중의 하나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길목과 사거리에서 자신들의 커피숍을 세우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가지고 태동한 스타벅스는 정말 자신들의 목표처럼 꽤 많은 사फल과 거리에서 우리의 눈에 띈다. 웬지 커피를 마신다면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것이 cool(cool)해 보이는 그런 의식마저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다. 커피숍과 커피 맛은 쿨 할지 모르지만 그 회사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입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쿨 하지 않다. 이것이 현대인과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와 커피 맛들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스타벅스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커피숍으로만 보

하고 있는 것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우려하는 사회이슈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말하였다. Tom의 의견에 대한 스타벅스 사장의 대답이 이번에 더 크게, 모든 동성애 단체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며 많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동성결혼과 반기독교적 가치관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독교 단체들인 NOM(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FRC(Family Research Council), AFA(American Family Association) 등은 이번 일로 인해 스타벅스 사장의 목표가 단지 경제적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현재 사회에서 가장 혼돈스런 이슈에서 동성애자들의 편에 선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시했다. NOM은 계속 "스타벅스 커피를 버리라"와 홈 디포(Home Depot)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다른 기독교 단체들 또한 힘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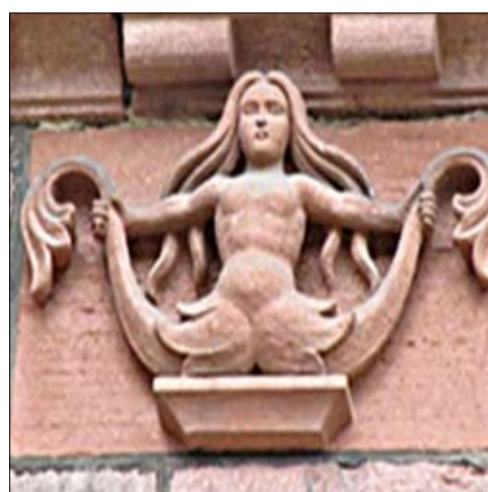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단골 고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단체들이 스타벅스와 홈 디포를 향해 벌이는 불매운동은 어떤 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벌이는 운동이 아닌, 오히려 그들의 수익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쓰여지기를 바라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이는 운동인 것이다. 단지 내가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또한 분별하고 살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그 사이에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커피를 마실 것인가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말씀대로 사는 분별 가져야

는 안되는 이유이다.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선택이고 자유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커피숍 선택이 단지 개인적인 취향의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스타벅스의 사장인 Howard Shultz가 지난 3월 중순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스타벅스 회사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못 박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는 스타벅스의 사장 Howard Shultz가 Tom Strobar이라는 한 크리스천 주주의 질문에 답한 내용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스타벅스 커피는 경제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입장에서도 비즈니스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전통결혼을 지지 하는 주주들과 사람들은 스타벅스 주식을 팔고 다른 데로 가도 상관없다. 또한, 그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사지 않아도, 안 마셔도 상관없다. 스타벅스가 동성결혼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지하며, 사회 여러 평등에 대한 법안들을 지지하고 대대로 후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스타벅스의 신조와 가치관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목적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들을 수용하는 것이기에, 회사적으로 동성애자들을 계속 후원하며 지지할 것이다" 지난 21일, 시애틀에서는 스타벅스 주주들의 연례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Tom Strobar 라고 하는 크리스천 주주는 스타벅스 비즈니스 수입이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스타벅스에서 계속적으로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



Siren from Greek mythology(사이렌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온 여신상을 카피해 만든 스타벅스 로고 의미는 "강력한 집착, 중독, 죽음". 더 자세한 설명은 TVNEXT.ORG에서 찾으세요)



여신을 섬기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나온 여신상을 카피해 만든 스타벅스 로고 의미는 "강력한 집착, 중독, 죽음". 더 자세한 설명은 TVNEXT.ORG에서 찾으세요)

아 이일에 동참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업체들을 향해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은 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닌 "가치관의 전쟁"으로 변해 스타벅스같이 큰 커피회사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결핵균, 비정상적이고 혼돈스런 성장체성들, 건강하지 못한 가족관을 자신들의 커피와 함께 판매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들이 벌여 들인 수입으로 후원까지 대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자신의 돈이 낭비되거나 허비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자신의 돈이 자신의 가치관과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후원하는데 쓰여지는 것도 원치 않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사는 지금 우리 자녀들, 다음세대들에게 '세상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의 질문에 있어서 로마서 12:1-2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이번에 북한의 신의주가 보이는 단동에서 며칠간 선교차 다녀왔습니다.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는데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국과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쟁을 하겠다고 야단인데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한민족의 독특한 저력을 통해 민족 통일의 과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우리 국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국가처럼 가슴으로 부르는 민족입니다. 이런 남북이 분단된 민족은 이 지상에 유일하게 남북한, 한반도뿐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순리이고 그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통일은 불시에 올 것이고 그리고 통일은 다니엘서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찬란한 민족의 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미국에 와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하루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 김교신 선생이 늘 강조한 것처럼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꿈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민족의 봄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환경철 박사가 "한국인의 숨은 자산"이란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 미성숙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은 왕정에서 일본의 식

대통령의 지혜와 통찰력위해 기도해야

민지배를 경험하고 전쟁과 가난, 군사독재정부를 경험하고 경제성장을 이룬 뿐 아니라 정치도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김중훈 씨의 예를 보더라도 아직 한국민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포용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인재를 조국의 미래를 위해 포용하는 정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적 자부심, 즉 국민력을 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환경철 박사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숨어 있는 우리의 자산 즉 한민족의 삼천성-몽골족의 기상, 동이족의 지혜, 기예, 두뇌, 교육 그리고 배달민족의 심성을 하늘로부터 받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이 한민족 삼천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인류 최고가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민족, 덕성 높은 온정의 민족, 심덕이 최고인 예절을 아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몽골족의 기상 몽골 기질이 있는 민족이기에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전만 제시하면 어느 민족보다 열화와 같이 일어나는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002년도의 월드컵과 같은 예를 보아도 한국인의 국민적 저력을 알 수 있습니다. 토인비도 역사학자적 안목으로 세계의 미래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이 미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과거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몇십년 후에는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IT산업의 강국이 되어 세계에 우뚝 서고 일본을 제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벼랑 끝 전술핵을 가지고 위협하며 전면전 불사 서울 불바다 등으로 역사 이래로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위기를 막아주시고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어서 슬기롭게 이 어려운 국난을 잘 극복하고 역사에 남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도록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저녁) ~ 25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 문의 : (818) 306-4912
-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목회서신

종교생활로부터 은퇴 합시다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지난 주말에는 한국의 유시민이라는 한 정치인이 정계 은퇴 후 가진 첫 인터뷰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필자는 이 정치인의 두 가지 발언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보았다. 유시민 씨 발언 첫 번째: "힘들어도 전망이 보이면 계속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졌어. 정당혁신, 참여민주주의, 정책결정이 일어나는 정치를 목표로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안됐고

될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저는 졌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필자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어본 내용: "힘들어도 전망이 보이면 계속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졌어. 예수님 닮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삶, 모든 일에 참되고, 모든 일에 옳고, 모든 일에 경건하고, 모든 일에 거룩해보려고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혹은 그 이상을 달려왔어요. 그

런데 안됐고 될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완전히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유시민씨 발언 두 번째: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 필자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어본 내용: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고 싶어서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활동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떠

납니다." 현대 기독교의 왜곡된 모습 중의 하나는 '기독교의 최우선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전하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덕스럽게 잘 살아 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이해를 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현재 당신의 삶에 가져다준 결과는 무엇인가? 만족할만한 수준인가? 유시민씨가 한국 정치권에 실망을 하고 그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는 졌다고 선언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매일 생활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 앞에서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졌다고 선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자가 전하는 말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의 무용론을 펼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지속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 자신이 행하신 구속 사역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지 않고 감명 받은 가르침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행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다. 일년 365일 내내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소홀히 한 채 윤리나 도덕 그리고 현실생활이 중심이 된 적용적인 가르침을 듣는다면 삶이 표면적으로는 꽤 괜찮은 모습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내면의 본질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의 손봉호 교수님이 1987년도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와 성도의 깨어난 도덕성을 끌어올려 보겠다고 야심차게 25년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손봉호 교수님이 25년 동안 펼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대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25년 동안 일

마나 많은 수고를 했었는가?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들과 슬로건들이 있었는가?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오히려 더욱 더러워지고 더욱 부정직해지고 더욱 불순결해진 것 아닌가? 이것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손 교수님의 말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왜 그럴까? 윤리도덕 적용 설교가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더욱더 윤리, 도덕, 적용 설교를 전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달려보라. 거기에는 결코 소망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중단하고 떠나야겠다고 은퇴선언을 하면 어떻겠는가?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이메일: newsong6364@gmail.com
(832)867-5864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인 88% 성경 소지...

미국인의 88%는 성경을 갖고 있으며, 66%는 성경이 지닌 가치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독교 전문 리서치업체 바나그룹이 미국 전역의 성인남녀 2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28일 바나그룹에 따르면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59%가 성경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인 여부와 상관없이 성경이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경 소지자는 평균적으로 집에 3.5권의 성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성경 소지자 4명 중 1명은 성경을 6권 이상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성경은 신성한 문헌"이라고 밝힌 비율은 80%에 달했으며, 66%는 성경이 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원칙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꼭 가르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과 유대교 율법인 토라가 신성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와 4%에 불과했다.

지난 3일부터 히스토리채널을 통해 방영된 미니시리즈 '더 바이블'은 시청자가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성경 이야기를 압축한 이 드라마를 크리스천들만 보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의 27%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영향력이 조금씩 약화되는 조짐도 보인다. "성경에는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응답은 2011년 75%에서 올해 66%로 감소했다. 또 "성경은 사람이 쓴 교훈적인 책일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10%에서 17%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처럼 미국인 대부분이 성경을 신성

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세속화된 사회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언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가운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현시 여론은 반대가 많았던 10년 전과 달리 찬성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바나그룹 대표 데이비드 키너만은 "미국인 대다수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만, 성경의 가르침들을 다문화 사회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는 법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빌리 그레이엄 영화 '나의 희망 미국'

빌리 그레이엄(95·사진) 목사의 새로운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하는 나의 희망 미국(My Hope America with Billy Graham)'이 오는 11월 미국 전역에 공개될 예정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손자 윌 그레이엄(38) 목사는 1일 크리스천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할아버지는 매일 20분씩 촬영하는 등 당신의 95번째 생일인 11월 7일 즈음에 공개될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윌 목사에 따르면 '나의 희망 미국'은 11월 미전역에 TV로 방영되고 DVD로도 나올 예정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예전처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과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 그가 2002년부터 제작한 '나의 희망' 시리즈는 '마태 작전'으로 불린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이 믿음 없는 친구나 이웃을 집으로 불러 '나의 희망' 시리즈를 함께 시청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협회에 따르면 '나의 희망' 시리즈는 2002년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등 57개국에서 방영됐으며, 이를 통해 1000만명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윌 목사는 최근 극동방송 초청으로 방한했을 때 "할아버지는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명철해서 올라갈에 출간할 '구원(Salvation)'이란 제목의 책을 구술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새 교황, 동성결혼 '해결사' 역할 주목

첫 예수회 출신 교황으로서 교회 안팎의 개혁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교황 프란치스코는 동성결혼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들에 관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 권위적인 이전 교황들과 달리 소탈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보수적인 로마가톨릭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장으로서 그의 행보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추기경이던 시절 첨예한 논란을 빚었던 동성결혼 문제에 대처했던 사례에 비추어 앞으로 '해결사(deal maker)' 역할을 해줄 기미는 시각이 많다고 인터넷서널헤럴드트리뷴(HTT)이 21일 보도했다.

IHT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아르헨티나에서 이 법안은 도입 초기부터 큰 논란이 됐고, 아르헨티나 가톨릭교회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현 교황 프란치스코)도 신자들에게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가두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주교들과의 사적 회의에서는 예상의외 발언을 내뱉었다는 후문이다.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은 안되지만 동성간 결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동성결합(civil union)은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과 대비되는 이 발언에 주교들은 당황하고 격분했다. 하지만 추기경의 의중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시 추기경은 솔직하게 이 문제를 두고 타협을 원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교황의 전기작가인 세르지오 루빈은 "추기경은 동성결혼 허용법의 통과를 앞두고 '그래도 덜 악한 것'이라며 동성결합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사회와 좀 더 대화를 하자는 쪽에 내기를 건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에 권리를 주장하는 신학자인 마르첼로 마르케스는 "동성결혼이 논란이 됐을 때 추기경에게 강경한 어조로 서한을 보냈는데 한시간도 안 돼 연락이 와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추기경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내 의견을 매우 존중하고 경청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 이슬람성직자 송환소송 패소

본국 송환을 피해 영국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여 온 요르단 출신 급진 이슬람 성직자 아부 카타다가 항소심에서도 이겨 추방을 피하게 됐다.



런던 항소심판은 27일정부에 대해 카타다의 요르단 송환을 금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테러 혐의로 요르단에서 기소된 카타다가 본국에 송환되면 고문으로 얻은 증거 사용 등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카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내무부는 8년 가까이 이반 송환 작업에 매달렸으나 지난해 11월 영국 특별이민항소위원회(SIAC)의 송환 중지 판결로 마지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내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 상태였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월에는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카타다를 재수감해 송환 집행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패배로 조만간 카타다를 다시 풀어주게 됐다. 내무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1993년 영국으로 망명한 카타다는 요르단에서 두 건의 폭탄 테러를 기획한 혐의로 1998년 벌칙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영국에서는 2002년 반(反) 테러법에 따라 처음 체포됐으며 이후 2005년부터 강제 송환을 피해 영국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여 왔다.

아직도 스펙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대, 스펙을 넘어 스토리 감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스토리의 강력하고 신비한 매력!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지 영적 원리와 해법을 알 수 있다.



315면 / 12,000원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소강석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목회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위대한 스토리의 세계!
비천한 노예와 강간 미수범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애굽 총리에 오르는
요셉의 생애에 은닉된 스토리의 베일이 벗겨진다.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맨발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상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 성소권 352면 / 12,000원
-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 생명나무 503면 / 16,000원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13)

3. 암몬/모압(Ammon/Moab)

암몬 지역
일반적으로 암몬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이고, 동쪽 경계는 시리아 사막, 남쪽 경계는 아르논 강, 북쪽은 압북 강으로 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뒤 아르논 강으로부터 사해의 북단 끝까지는 르우벤 지파(수13:15-23), 사해 북단으로 부터 압북 강까지는 갓 지파(수13:24-28)가 과거 암몬 족속의 땅을 대부분 분배 받는다. 그때 암몬 족속은 현재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 즉 랍바를 중심으로 동편의 땅 일부를 차지하고 남게 된다.

암몬 고원: 길르앗 아래쪽에 있으며 암몬은 압북강 상류에 있는 길이 32km, 폭이 16km 정도 되는 분지에 있는 4각형의 소왕국이었다. 중앙의 넓은 계곡에는 압북강이 흘러서 개간이 가능한 넓은 땅이 있었고, 건조한 사막의 경계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과 목축을 함께 했다.

암몬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로 성서에 따르면 롯의 두 딸 중 한 명은 암몬의 시조가 되고, 또 한 명은 모압의 시조가 됐다고 한다. 암몬은 '내 백성의 아들(벤암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의 가나안 진입과 관련해 암몬 자손의 땅을 지나 여러 중요 도시들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다(민 21:24-35, 신 2:19-37). 르우벤과 갓의 땅으로 현재 요르단 땅이다. 해발 900mm에 위치, 길이 60km, 넓이 40km의 밀과 보리가 생산된

다. 강우량은 250mm로 많지 않은 편이다. 모세가 마지막을 맞이한 느보산이 이 지역에 속한다.

주요 도시로는 지금의 암만(요르단의 수도), 랍바가 있다. 요단의 동편 모압의 북편인데 그 수부는 랍바다(삼하11:1, 겔25:5, 암 1:41). 주민은 성격이 잔인무도해 싸움을 좋아하고 원수의 눈을 빼는 일과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려는 일을 했다(삼상 11:2, 암 1:13).

랍바는 옛 암몬족속의 도시로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과 동일시되고 있다. 다윗도 랍바를 정복하고 암몬 족속을 지배했다.

모압 고원: 암몬 고원 다음에 있는 곳이다. 모압은 바로 사해 동부에 있는 고원지대인 이곳은 남쪽은 세렛 시내로 에돔과 접해 있고, 동쪽은 사막지대이며, 북쪽은 아르논 강의 북쪽 40-50km 지점에 있는 메드바, 헤스본 부근에 있는 지역이다. 바산, 길르앗, 암몬 등 북부 트랜스 요르단은 토지가 비옥하고 일정한 강수량이 있어 삼림과 농경지를 볼 수 있으나 모압 지역부터는 강우량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삼림은 목재로 쓸 수 없는 관목뿐이다. 초원이 많아 모압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성행했다(왕하 3:4).

모압은 롯과 롯의 큰딸 사이에서 생겨난 아들의 후손(창 19:35-37)으로 "아비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창 19:35-37, 창

19:36). 현 이스라엘 사해 동쪽 요르단 지역에 살던 서셈족 계열의 민족으로 구약 때부터 등장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알려졌다. 사사기 시기에는 모압 땅에 살다가 과부가 되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스라엘 여인 나오



미의 둘째 며느리 롯이 이스라엘의 지주 보아스와 결혼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도 했다.

모압 지역의 경계는 서쪽은 사해, 동쪽은 사막지대, 남쪽은 세렛 강, 북쪽은 아르논 강이나, 성경은 종종 모압 북쪽의 여러고 맞은 편 평지를 일컬어 '모압 평지'라고 부른다(민 21:12-14, 20, 22:1, 수 13:32). 산지는 주로 해발 900m 이상 되는데, 이러한 고산 지대는 겨울철에 풍부한 습기로 인해 포도와 농사에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 좋은 목초지를 형성하여 목축에도 적합한 곳이다.

4. 에돔 (Edom, Mt. Seir)

해발 1450-18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원의 길이는 약 177km이다. 에돔(Edom)은 현 이스라엘 남쪽 지방 사해 주변과 현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서 살았던 고대 민족으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시조로 본다. 홍해를 통해 무역을 했다. 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의 주산지이다. 주요 도시로는 보스라, 페트라, 부논 등이 있다.

에돔 고원

모압 고원 아래 있는 에돔은 트랜스 요르단의 최남단 지역으로 세렛 시내에서 남쪽 아카바 만에 이르는 이곳은 높은 산악지대로 창 14:6에서 이곳을 세일 산이라고 불렀다.

세렛 시내 연안은 해발 1,300m에 달하는데, 세렛 시내 남쪽부터는 다시 급격히 높아져서 해발 1,500m가 넘으며, 때로는 해발 1,600m 이상 되는 곳도 있다. 평균 1450-1200m이며, 최고봉은 1736m에 이른다. 그러나 에돔의 동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아라비아 사막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에돔은 바위가 많고 험준한 산악 지방으로 사해 남단에 위치한 제리드 강부터 시작해 사해와 홍해까지 연결하는 큰 골짜기 아라바의 양편 연안으로 아카바 만까지 뻗어 있었다. 에돔인들은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과도 전쟁을 벌였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여러 이민족들을 정벌할 때 8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신화가 됐다.

에돔인들의 반란으로 그 지역은 40년 동안 소강상태에 빠졌고 아마사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그 지

역을 회복했으나 곧 다시 반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원전 736년경부터는 아시리아 제국의 조공 국가가 됐으며 이후에도 계속 유다 왕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기원전 586년경 유다 왕국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면서 전쟁이 종결됐고 신약시대에 이르자 에돔은 유다 남쪽을 침공해 이두매 사람들이 됐다.

이스라엘 (Jezreel)

길보아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잇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였다(수 19:18). 사울은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곳에 그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그의 왕국의 다섯 번째 행정구역에 예측시켰다(왕상 4:12).

오므리 왕가의 아합왕은 이 도시를 크게 증축해 북왕조 이스라엘의 겨울별궁을 삼았다(왕상 18:45; 21:1). 아합왕은 이스라엘의 별궁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근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차지하려고 그 주인 나봇을 살해한 적이 있다(왕상 21장). 아합이 나봇을 살해한 죄의 대가로 아합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이곳에서 모두 살해당했다(왕하 10:7, 11).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앗수르의 디글랏발레셀 3세가 보낸 군대에 의해 파괴당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했다. 헬라시대부터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된 이곳은 중세 때까지 그 명맥을 계속 유지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산지는 갈멜 산맥 아래 남북으로 65km, 동서로는 약

56km 정도 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구약시대 에브라임 지파(남쪽)와 므낫세 반 지파(북쪽)가 살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다. 이곳은 테라 로사(terra rosa)라고 부르는 비옥한 토양과 충분한 강수량(600-700mm)으로 농사짓기에 적합했으며 에발 산(940m)과 그리심산(881m)이 있고, 유다 산지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해발 1,016m에 이르는 바알 하술 산이 있다.

중앙의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에브라임 산지와 북쪽 므낫세 분지로 나누어졌다. 에브라임 산지는 므낫세 분지보다 높은 곳에 있으며 해발 600-900m의 높은 산악지대였다. 동쪽과 서쪽은 급경사가 있어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어서 침입해오는 적을 막기에는 매우 유리했다. 이곳에서 요단 계곡으로 흘러 내리는 골짜기에는 여러고로 가는 교통로가 있었다.

므낫세 분지는 북동쪽에 길보아산맥, 북서쪽에 갈멜 산맥, 그리고 남쪽에는 에브라임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였다. 그러나 완만한 구릉이 많고, 구릉과 구릉 사이에는 상당히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주요 도시로는 미스바, 펠렐, 실로 등 주요 도시들이 족장의 도로를 따라 있었다.

(끝)

[편집자]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분지 주최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앞서 연재된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예수님의 발자취'는 이번 호로 마치고 제 1430호부터는 "성지순례-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를 연재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독을 바란다.



가정사역 칼럼

추억의 박물관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부활절을 맞아 대다수의 자녀들은 봄방학(Spring Break)을 갖는다. 이때를 맞아 삶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추억이든, 쓰라리고 가슴 아팠던 추억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추억이 있다. 좋은 추억들은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시절을 당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준다.

저장 될 수도 있지만, 파스함과 아름다움, 희생, 그리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수집해놓은 곳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아내들은 가정주부라고 하기보다 박물관에 추억들을 수집하는 박물관장이야 할 것이다.

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억은 그저 우연히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을 설계하는 것과 똑같이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되어야 하며 예산이 세워져야하고 적합한 양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 자녀와 아내는 뒷전이셨다고 한다. 견디다 못한 어느 날 사모님께서 남편을 납치하시며 하여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셨다고 한다. 목사님은 그곳에서 며칠 동안 아이들과 낚시도 하고 모처럼만에 가족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한다. 특히 첫째, 둘째 아이보다 막내아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셨던 모양이다. 그 후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제각기 다른 도시에 살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업무로 첫째 둘째 자녀들이 사는 도시에 가서도 전화통화 정도만 하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과 쌓아두었던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나서도 할 말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막내의 경우는 달랐다. 막내가 사는 도시에 가면 거리가 멀어도 가정을 방문하고 머물기도 하신다고 한다. 만나면 늘 "아, 그때 아빠와 내가 낚시하던 일!"

로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때의 재미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시나고 했다. 그렇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들로 하여금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며,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하여 만들어주신 소중한 추억들은 자녀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불러 일으켜 줄 것이다.

넘어가 듯 웃는 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부모님의 소리, 그리고 저녁식사시간의 맛있는 음식냄새는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즐겁고, 사랑스럽고, 평안한 분위기는 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그렇다. 우리 주변의 어떤 가정을 떠올리면 웬지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며 힘을 부여받는(empowering)가정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웬지 슬슬하고 집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며 힘을 공급해줄 수 없는 가정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이렇게 힘을 부여받는 가정공동체가 되도록 휴가철이나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여름학기 본교강의안내

May 13-May 17 (5월 13- 5월17일)

IM 815 Mission Strategy (선교전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Julien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Marc Wooter

May 20-May 24 (5월 20 - 5월 24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M 801 Leadership in Local Church(지역교회 리더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effrey A. Gill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3년 5월 11일(토) 오전 9시

장소: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Orthopaedic Capital Center

Off-Campus Courses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S. Park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Dr. Ken Bickel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S. Park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32.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 (1) 젊은 지구의 중요성

“기독교 신자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인간 역사 6000년이라~? 마치 지동설을 듣는 착각이 들었고 달을 바라보며 계수나무, 토끼 얘기를 듣는 것 같군요. 우리의 과학이란 걸 마치 삼류 쓰레기처럼 취급하려는 성경무오설에 심취되어 있는 신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창조과학칼럼을 읽은 한 장로님으로부터 온 이메일 중 일부다.

지나간 일(역사과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확실한 연대는 전기전능한 증인이신 하나님만 말씀해주시 수 있다.

2. 과학적 증거와 해석

현재 성경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구의 역사가 불과 수천 년이란 주장이다(Already Gone, Master Books). 실제로 성경을 불신하기 시작한 출발점은 이 오랜 역사였다.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믿음(사실로 확인된 과학이 아님) 때문에 성경의 처음 11장을 신화로 만들어버린 창조이론들이 나왔고 진화론도 나왔다. 이 진화론은 역으로 수십억 년의 역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그 새로운 창조이론들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수명과 죽보, 노아홍수와 바벨탑 사건 등의 기록이 계수나무와 토끼 이야기처럼 지어낸 아득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었을 것이다.

1. 지구 나이 연구의 한계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가능해본 방법들은 실제로 100가지가 넘는다.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연대를 가능해 볼 때 몇 가지들 빼고 거의 대부분의 방법들은 45억 년보다 훨씬 젊은 연대가 나온다. 그러나 젊은 혹은 오랜 연대를 보여주는 그 어떤 측정방법도, 암석의 성분을 측정하거나 혈당을 측정하는 것처럼, 확실하고 절대적이지 않다. 후자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볼 수 있는 일(실험과학)이지만 전자는 다시 확인할 수 없는

창조과학자들은 젊은 지구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억 년을 부정하는 증거들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를 이해하고도 성경이 말하는 젊은 연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증거 자체가 말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 증거들을 달리 해석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들은 자기들이 관찰하지 못한 과정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들과 시나리오들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나이를 논할 때도 출발점과 논의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가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출발점과 가정이 다르면 자연히 증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

기 때문이다. 세상 과학자나 성경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출발점은 사람의 생각(과학)이다. 그러나 과학은 계속해서 바뀌게 되므로 거기에 근거한 해석은 당연히 자주 바뀌게 되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창조과학자의 출발점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므로 증거들을 더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의 기초다. 사람이 쓴 모든 문서들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은 오류가 없다. 앞에서 언급한 어느 장로님의 시각에서는 성경이 오류투성이로 보였는데 그것은 잘못 된 과학을 근거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닌 것은 맞지만 거기에 적합한 과학적인 언급이나 역사는 틀림없는 사실이란 것이 이미 충분히 증거되었다. 6000여 년 전에 지구와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가지

바다 바닥에 아주 적은 양의 퇴적물, 여러 층이 함께 휘어 있는 지층들, 화석 속에 들어있는 생체조직, 희미한 태양,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지구 자기장, 암석 속의 헬륨가스, 화석과 석탄과 다이아몬드에서 있는 방사성탄소, 단주기 헬륨, 아주 적은 염도의 바닷물, 고대 박테리아의 DNA. 이상의 증거 10가지를 통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불과 수천 년의 젊은 지구가 사실임을 차례대로 전해드리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젊은 지구의 증거들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로 10가지만 골랐을 뿐이다(이 내용들은 미국 창조과학회의 Answers 최근호(vol.7 No.4)에 있는 주제들로 필자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편집/번역/추가한 칼럼들이 될 것입니다).

5. 지구의 나이의 중요성

과학자들의 말이 성경보다 더 확실하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

바다 바닥 극소량의 퇴적물 등 10가지가 젊은 지구 증거 오랜 지구는 창1장을 신화화시켜 그리스도 대속 불요화



진정한 지구의 역사는?

사람 있기 전 수백만 년 이상 죽음과 고통이 있었다는 진화론적 역사(좌측)와 완전한 창조에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이 들어와 창조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수천 년의 성경 역사(우측)

설명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다.

성경 이외에 그 어떤 종교에서나 과학책에서도 과학법칙(열역학 제 1법칙과 2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물질의 시작을 설명하지 못한다. 절대 무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없고, 존재의 법칙인 열역학 제 1법칙 때문에 창조를 제외하면 에너지(물질)의 시작을 설명할 과학적 가설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 창조자라고 주장한다. 성경(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이 세상을 보았을 때 창조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그 증언에 합당한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 널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젊은 지구의 과학적 증거 10

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쓰여있는 것 중에 과연 무엇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신은 바른 확신일 수 있을까?

오랜 지구의 나이는 성경의 처음 11장을 신화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처음 11장의 사실들 때문에 인류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실들이 신화처럼 느껴진다면, 복음은 절대적인 필요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것 혹은 죽음 이후까지 복을 받으려는 또 다른 탐욕이 되고 말 것이다. 죽음으로 절멸 된 오랜 진화역사가 사실이라면 인류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게 된다. 이런 문제 외에도 오랜 지구 역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품이 몹시 왜곡되고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책이 되어버린다.

지구의 나이는 불과 수천 년 밖에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사실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에는 이 오래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질학에서, 생물학에서, 고생물학에서, 그리고 천문학에서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기쁨의 성품으로 사랑을 말하세요.

어느 날 펼쳐본 일간지에서 '우리나라도 고독사 시대가 다가왔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간지구의 대표적인 심리상태는 아무리 외로워도 다른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사의 내용은 경기도 수원원의 한 고시원에서 이모(32)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의 웅크린 삶과, 열방의 사람이 죽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시대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습니

다. 기사의 하단에는 '김정일 진짜 위기는 젊은 군인들!'이라는 큰 제목의 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군대 내 식량 공급마저 줄거나 중단되면서 북한의 군 집단이 언제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남북한의 불안한 현실을 보도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신문을 한 장 넘기니 양주의 한 고교생들이 개 10여 마리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개들을 훔쳐 고등학교에 죽이며 그 참혹함을 즐기는 병리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가출 청소년의 탈선 1번지로 빈집의 문제를 가시화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1일 화성의 빈집에 불이 났는데 한 여중생의 시신이 화재로 탄 매트리스 위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가출해 6개월 동안 빈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당혹스러운 현실입니다. 하루의 일상을 담은 일간지의 기사라고는 믿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삶의 무게가 지금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바라봐야 할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을까?' 이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지 바라고 계시니까? 의문점을 가지고 시끄러운 현실을 멀리 한 채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의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렘32:41). 아! 주님은 패역한 이 시대를 꾸짖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향해 이 땅에 그들을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을 주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분 앞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참된 안도감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기쁨이란 말의 의미는 '마음이 즐겁고, 벅차오르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찾을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우울한 상황을 선택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독한 섬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지요.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라고 필자는 기쁨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본질입니다. 기쁨의 성품은 주님처럼 마음과 정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복을 주려고 결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사랑하는 자제가 바로 기쁨의 성품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37:4)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로 기쁨의 성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 그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은 바로 그 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렘33:9)여전히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복된 희망을 선포하면서 창조주로서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기쁨의 성품으로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남하스
2권:다~못
3권:뜻가~소위
4권:소유~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대결
7권:판말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한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일어나라 사명을 위하여!” 주제 KAPC 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성료



KAPC서부지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임영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미주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분회 교육부(교육부장 오세훈 목사) 주관으로 4월 1일과 2일 양일간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오세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개회예배에는 부총회장 임영민 목사(OC제일장로교회)가 ‘성숙한 자의 기도’(잠30: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영민 목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

는 존재들”이라며 “우리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무능하고 부족한 것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주야로 연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진정으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은 기도회는 “총회를

위해” 제목으로 조영철 목사(가주노회장)가, “서부지역 노회들을 위해” 제목으로 김강인 목사(LA중앙노회장)가 그리고 “지 교회 목사 장로들을 위해” 제목으로 김성일 목사(LA노회장)가 기도를 인도했으며 황은영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기도회는 전대주 목사 인도로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등의 제목으로 기도가 열렸으며 김삼덕 목사(전 총회장)가 “모세의 총성”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가 “목회자의 치유사역”이라는 주제로 각각 오후강의를 인도했다.

또한 저녁 집회에는 최인근 목사(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가 강사로 나서 ‘사랑이 해답입니다’(요 21: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둘째 날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최인근 목사가 “이민교회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컴퓨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인/터/뷰 CCM가수 주리 ‘주리가 부르는 치유의 노래’ 3집 앨범 출시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오면 합니다.”

지난 3월 3집 앨범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앨범활동에 들어간 CCM가수 주리(주리)는 이번 3집 앨범 ‘주리가 부르는 치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콘서트를 하기위해 전국을 다니다보면, ‘오늘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나 그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콘서트 무대를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부르는 찬양 한국 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인상 깊었던 공연들은 공연을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을 갈 때라고 말했다.

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죽을까진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보람도 있고 감사하게 되요.”

이번 미서부 투어에서 인상깊은 것은 월드퀘어에서 가졌던 홀리스들과의 콘서트와 귀국 하루 전에 참여했던 ‘믿는사람들의 홀리원 콘서트’였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홀리스들과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언어적인 제약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말이 더 편하고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반면 홀리스들은 비록 노숙자들이지만 영어

“소외된 곳 찾아가 하나님 사랑 노래하고 파”

“야마존에 있는 교회에 공연을 할 때였어요. 거긴 다른 데에 비해 공연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공연을 보며 매우 즐거워 하셨어요. 그리고 미주 동부 공연 때도 공연이 끝나자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려왔어요.”

주리 자매는 또한 자신의 찬양을 통해 가족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주공연을 할 때였어요. 공연이 마쳐지고 며칠 후였는데 제 페이스북으로 어떤 쪽지가 와 있었어요. 쪽지내용은 어떤 분이 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제가 부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CD를 구입하셨대요. 집으로 가시는 중에 제 찬양곡을 듣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민생활의 견디

고 있던 분들이기에 저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리 자매는 리허설 때부터 서로 배려해주려고 하는 모습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긴장감이 점점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며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주리 자매는 고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을 대할 때마다 더 애뜻함이 느껴진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미주지역은 물론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의: trinity_music@hanmail.net (박준호 기자)

“아마존에 있는 교회에 공연을 할 때였어요. 거긴 다른 데에 비해 공연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공연을 보며 매우 즐거워 하셨어요. 그리고 미주 동부 공연 때도 공연이 끝나자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려왔어요.”

주리 자매는 또한 자신의 찬양을 통해 가족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주공연을 할 때였어요. 공연이 마쳐지고 며칠 후였는데 제 페이스북으로 어떤 쪽지가 와 있었어요. 쪽지내용은 어떤 분이 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제가 부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CD를 구입하셨대요. 집으로 가시는 중에 제 찬양곡을 듣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민생활의 견디

‘이야기식 설교’, ‘이야기 설교’ 와 다르다

뉴저지교협 설교클리닉 개최 강사 임장기 목사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후원한 설교클리닉이 지난 25일 뉴저지 베델연합감리교회(담임 정성만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교수 임장기 목사(뉴저지코너스톤교회 담임)로 ‘이야기

설교’와 ‘이야기식 설교’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임 목사는 “‘이야기 설교’는 서론/본론(3포인트)/결론의 형식으로 하는 설교를 말 그대로 옛날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것이고, ‘이야기식 설교’는 5단계의 플랏 형식으로

이루어진 설교”라고 말했다. 임 목사는 “‘이야기식 설교’의 형식 1단계는 화두를 던지는 단계, 2단계는 화두를 풀기 위한 분석단계, 3단계는 화두와 분석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단계, 4단계는 반전의 내용을 신앙적 교훈으로 변환하는 단계, 5단계는 신앙적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 같은 단계를 설교학자 유진 라우어(Eugene Lowry)는 ‘Oops!의 단계, Ugh!의 단계, Aha!의 단계, Wnee!의 단계, Yaeh!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협회장 박상천 목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설교의 전통적인 형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인 ‘이야기식 설교’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강사의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아마존에 있는 교회에 공연을 할 때였어요. 거긴 다른 데에 비해 공연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공연을 보며 매우 즐거워 하셨어요. 그리고 미주 동부 공연 때도 공연이 끝나자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려왔어요.”

주리 자매는 또한 자신의 찬양을 통해 가족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주공연을 할 때였어요. 공연이 마쳐지고 며칠 후였는데 제 페이스북으로 어떤 쪽지가 와 있었어요. 쪽지내용은 어떤 분이 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제가 부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CD를 구입하셨대요. 집으로 가시는 중에 제 찬양곡을 듣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민생활의 견디

고 있던 분들이기에 저분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리 자매는 리허설 때부터 서로 배려해주려고 하는 모습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긴장감이 점점 없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며 이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주리 자매는 고국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을 대할 때마다 더 애뜻함이 느껴진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미주지역은 물론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의: trinity_music@hanmail.net (박준호 기자)

“아마존에 있는 교회에 공연을 할 때였어요. 거긴 다른 데에 비해 공연문화가 매우 열악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공연을 보며 매우 즐거워 하셨어요. 그리고 미주 동부 공연 때도 공연이 끝나자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려왔어요.”

주리 자매는 또한 자신의 찬양을 통해 가족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미주공연을 할 때였어요. 공연이 마쳐지고 며칠 후였는데 제 페이스북으로 어떤 쪽지가 와 있었어요. 쪽지내용은 어떤 분이 제 공연을 보러 오셨다가 제가 부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 CD를 구입하셨대요. 집으로 가시는 중에 제 찬양곡을 듣다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민생활의 견디



설교클리닉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티리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Tel: (718)359-7883, 직통: (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ch@yahoo.com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5:5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718)464-2295,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5: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Tel: (516)883-9194,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20-10 Horace Harding Expw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이론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영양예배: 오후 1:30 6부 BM&EM: 오후 3:00 7부북은예배: 저녁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매주 수, 수)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net.org Tel: (516)333-1757, 사무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941-0821, Fax: (704)941-1625 목사선: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키온타리오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밴앨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령찬양: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전 11:00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8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0:45 주일3부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경음)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전 6: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제4차시도 토 주일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 6:00(토)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안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한)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템피파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전 9:00

동부교계 게시판



곽선희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주최하는 곽선희 목사(서울 소망교회 원로)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설교와 현대목회” 주제로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퀸즈중앙장로교회(안창익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813-6580 최예식 목사, (917)559-8877 송병기 목사, (718)309-7966 지인식 목사

뉴욕예신전도훈련대학 제 2기 학생모집

뉴욕예신전도훈련대학(대표 이종선 목사)이 제 2기 학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4월 29일부터 40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강의 후, 12시까지 전도한다. 김기남 목사(한국 예신전도훈련대학 원장)의 동영상 강의로 진행한다. 장소는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 세례교인 이상으로 신청서와 담임목사 추천서가 필요하다. 등록비는 200달러로 4회 분할이 가능하다. 한편 4월 22일(월) 오전 9시 켄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에서 공개특강이 있다.

▲문의: (347)559-3030

미자립교회 후원음악회

뉴욕교협(회장 김중훈 목사)이 주최하는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사랑과 찬양의 향기 음악회”가 4월 28일 퀸즈한인교회(이규섭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문의: (718)358-0074

제7차 영상설교 세미나

제7차 영상설교 세미나가 5월 13일(월)부터 16일까지(목) 뉴욕신민교회에서 열린다. 화비는 신규회원 100달러, 평생회원 300달러, 자료비 50달러. 개인 노트북을 소지해야 한다. 강사 김석급 목사는 현재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2500명과 매주 수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와 영상목회학 박사과정을 진행, 130여 명이 등록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포토샵, 김프, 파워포인트, 한쇼, 캠페이샤, 무비메이커, 파워디렉터, Ulead Cool 3D, 비터, 포토사인, 타이틀 데코, 스위시 맥스, 안 카메라, 파일변환프로그램 성경과 원어 및 기타 목회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며 이번 세미나에 등록하면 영상자료 3테라 구매가 가능하다. 또 뉴욕, 필라,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 매일 모이는 영상설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다.

▲문의: (646)763-4211 김기호 목사

퀸즈장로교회 2013년 여름학교 조기등록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2013년 여름학교가 1차 4월 26일까지, 2차 5월 24일까지 조기등록을 받는다. 대상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이며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7주간에 걸쳐 진행된다(9월 6일까지 연장가능). 인터넷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school.kapcc.org).

▲문의: (718)886-4646

“새생명 얻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자!”

뉴욕 뉴저지 교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제히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 등 각 지역교협이 연합해드리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지난 31일 오전 6시 일제히 드려졌다.

뉴욕교협 플러싱 제4지역은 뉴욕 행복한국교회(담임 이성현 목사)에서 이지용 목사(뉴욕켄세마네교회 담임)의 인도로 시작됐다. 기도 전회

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담임), 찬양 행복한국교회 중창단, 말씀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담임), 헌금특송 김가엘 외 2명, 헌금기도 이태문 목사(지구촌교회 담임), 축도 최웅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철 목사는 “부활 증인”(요 11:25-2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부활은 죽은 자가 새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면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첫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고 남은 생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고 역설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지역연합의 활성화화를 위해 처음으로 지역별 목사 추구대회를 갖는다. 일시는 6월 3일(월)엘리 폰드 파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플러싱 제4지역 부활절새벽연합예배에서



순복음안디옥교회 임직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가 이만호 담임목사.

“악한 것 도려내고 상처 치유하는 언론 되라”

교회일보 창간4주년 기념감사예배 축하음악회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 창간 4주년 기념감사예배 축하음악회가 지난 31일 저녁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익 목사)에서 열렸다.

만찬후 시작된 예배는 엘피스찬양선교단의 찬양으로 시작돼 김경규 최정원 학생의 오픈찬양이 있은 후 박춘수 목사 사회로 기도 양민석 목사, 특송 장은경 사모, 성경봉독 이주익 장로, 설교 문석호 목사(“그리스도의 편지”, 고후3:2-5), 봉헌송 우현미 최옥자 집사, 봉헌기도 황영송 목사, 축사 김중훈 목사(뉴욕교협 회장), 박상천 목사(뉴저지 교협 회장), 최예식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손세주 총영사(뉴욕총영사관), 민승기 신임회장(뉴욕한인회), 김기철 회장(평통뉴욕협회의), 류제봉 회장(퀸즈한인회), 권면 김승희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이민선 목사(미주여성교협회장), 격려 국남주 목사, 이종삼 목사, 축도 박희소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3부 스페셜 이벤트는 감사패 전달(안창익 목사, 한재홍 목사, 뉴욕

권사선교협장단, 뉴욕기독교부합장단, 밀알선교협장단) 공로패 전달(토니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 이철우 한미공공정책위원회,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정승진 민권센터 대표), 당선축하(문 김 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지 뉴욕주하원의원) 순서가 있었으며 4부에는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은 임그레이스 목사의 오프닝 공연 후 김연규 목사가 오프닝 기도를 하고 특별게스트로 뉴욕권사선교협장단, 뉴욕기독교부합장단, 밀알선교협장단이 공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교회일보 창간4주년 기념감사예배 축하음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부부를 위한 세족식과 마지막 날 진행된 부부 재헌신 서약식을 통해 그동안 이민교회 목회로 인해 서로에게 소원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부르신 소명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행복한 부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의 소감문 전문은 패밀리터치 홈페이지 www.familytouchusa.org 자유게시판에 올려져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 “목회자 부부행복학교” 성료

패밀리터치 주관, 12쌍 참석 재헌신 서약식 가져

뉴저지교협(회장 박상천 목사)이 주최, 후원하고,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관한 “목회자 부부행복학교”가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지난 2월 4일부터 8회에 걸쳐 실시된 이 부부행복학교에서는 12쌍의 목회자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평가해보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설계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찾기 △부부대화의 기술 배우기 △남녀차이 이해와 성격 차이 이해하기 △성서적 가정의 원리 배우기 △갈등이해와 해결책 배우기 △행복한 성생활 △가정경제에 관해서 배우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통해 부부관계가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음을 고백했다. 그 외에도 매 주마다 부부 데이트를 위해 주어진 과제를 하면서 신선한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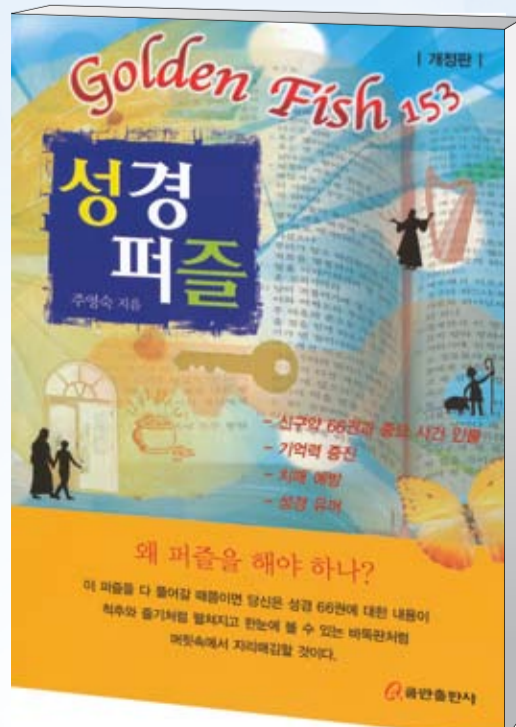
Golden Fish 153

한국 최초 성경퍼즐

신구약66권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사건, 내용, 인물들을 모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증진, 치매예방, 성경유머

이 퍼즐을 다 풀어 갈 때 쯤이면 당신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척추와 줄기처럼 펼쳐지고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바둑판처럼 머릿속에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 책은 어린이부터 어른 누구를 막론하고 쉽고 재미있게 성경의 줄기를 알아 가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을 재미있게 이어가다 보면 성경속의 모든 중요한 사건과 성경인물들을 다 만나 볼 수 있다.

각 장의 내용요약과 함께 그 장에 나오는 명칭 배경 저자 연도들을 간추려 내용윤곽을 알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성경유머와 함께 지루하지 않도록 각 장을 풀어가도록 하였다.

우리의 머리도 두뇌운동을 하지 않으면 육신이 병이 들듯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린다고 한다. 다양한 메카니즘의 수 만큼이나 그 원인도 다양하다고 한다. 치매예방의 가장 좋은 약은 처방 화학약품이 아니라 퍼즐의 기회가 가진 낱말의 연관성을 찾는 것으로, 그러다보면 두뇌회전이 되고 임기력이 생기며 사고하며 풀어감으로 내 안에 죽어가는 뇌세포를 깨워 병들지 못하도록 운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국사람들은 퍼즐 책을 상비약처럼 가지고 다니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을 버리지 않고 버스안이나 공원에서 퍼즐을 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은 자기전 퍼즐을 풀고자는 것이 그 많은 하루일과 중에 하나라고 한다.

지적인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진다고 하지만 훈련에 따라서 천재의 가능성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하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복을 누렸으면하는 바램이다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



저자: 주영숙

E-Mail: goldenfish153ju@gmail.com

주문: (646)595-5125

※ 구입문의: 가격 \$12.00 / 미국내 우송료는 Free
※ 교회, 단체 할인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 삶속에!” 남가주 9개 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

2013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남가주 9개 지역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LA지역은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주최로 열렸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에서 열린 LA지역 연합새벽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민경엽 목사(좌), 은혜한교회에서 열린 OC지역 부활절새벽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진유철 목사(우)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속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새벽예배는 박효우 목사(종성교회/수석부회장) 사회, 황의정 목사(둘로스교회/부회장)기도, 흥성목사(에벳산교회/회계) 성경봉독,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최대현장로) 특별찬양으로 진행됐다. 이어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OC교협회장)가 ‘부활에서 부활로!’(빌3:10-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실이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연결된다. 주님의 부활

이 우리의 부활로 나아가려면 과거에 묶이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묶이는 순간 현재를 놓는다. 과거를 통해 레스만 받을 뿐이다. 또한 미래의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 현재 내가 깊어지고 주님섬기고 있는지 생각하자. 날마다 현재를 살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남김없이 바치고 결코 물러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부활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장차 그날을 향해 나아가서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바치고 걸

코 후회하지 않고 영광의 그날로 가는 자를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특별기도 순서를 갖고 월영호 목사(성림장로교회/부회장) ‘미국의 신앙부흥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우성 목사(남가주광교교회/부회장)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강홍순 목사(은세계장로교회/부회장) ‘이민교회의 부흥과 동포사회의 복음화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 했다.

이날 예배는 한아름교회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의 헌기송과 박성근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이윤영 목사(한미장로교회/남가주목사회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새벽예배는 오렌지카운티지역은 OC교협 주최로 은혜한교회(한기홍 목사)에서, LA동부지역은 교역자협 주최로 선한정치교회(송병주 목사)에서, 세리토스 지역은 남가주중부교협 주최로 세리토스OMC(석태운 목사)에서, 벨리지역은 샌버나디노밸리 교역자협 주최로 은혜와평강교회(곽덕근 목사)에서, 벤추라 옥스나드 지역은 벤추라교협 주최로 카마리오키움(이상영 목사)에서, 샌버나디노카운티 지역은 샌버나디노교협 주최로 창대교회(이종준 목사)에서, 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이목사회 주최로 토렌스제일장로교회(이종민 목사)에서,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지역 교역자협 주최로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제28회 HYM청년연합집회를 준비중인 HYM 스태프 (사진 왼쪽부터 설수진 자매, 더글러스 김 대표, 정정화 목사, 홍성호 형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제로 13, 14일 제28회 HYM 청년연합집회

남가주청년연합회(HYM 대표 더글러스김)가 주최하는 제28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오는 13일(토)과 14일(주) 양일간 오후7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약2:14-26)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준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찬양은 HYM연합찬양팀(인도 김성아 전도사)이 맡게 되며 첫날 특송은 CCM 가수 최윤영 자매가, 둘째날 특송은 김은진 자매(행복한교회)가, 그리고 둘째 날 오프닝은 지저스홀릭 밴드가 맡는다.

더글러스김 대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 같은 것을 구하고, 말하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호흡하며, 삶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만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라고 강조했다.

HYM의 기획을 맡고 있는 정정화 목사(행복한교회)는 “HYM집회는 그동안 어떻게 청년들에게 도전과 필요를 줄 수 있을지를 기도와 고민을 하면서 주제를 정해왔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역시 그동안 HYM집회가 해왔던 주제들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 설명하며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시절에는 ‘Lost’라는 주제로, 지난집회 때는 지금이야말로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이며 교회내 청년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의 ‘Now is the Time’이라는 주제로 다가갔다”고 말했다.

▲ 집회 문의: (714)393-5135 (박준호 기자)

제17기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

생명의전화 감사예배 생명의전화(원장 바다윗 목사)는 제 17기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수료감사예배를 지난 28일 오후7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윤영 목사)에서 열고 50시간을 봉사한 17명의 16기 상담 인턴십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 없이 나온 사람, 슬퍼하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도 있었다. 역사는 이것을 비아돌로사라고 한다. 그것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는 의미다. 생명의전화 사역은 믿음 가운데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가 많을 것이다. 비아돌로사 인생길에서 긍휼의 눈물 잊지 말고 가려진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다윗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이윤영 목사(LA벨앨장로교회/운영위원장)가 기도를 김벌리정 집사(제17기 상담봉사원 회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정세훈 목사(새한교회 담임)가 ‘비아돌로사’(눅23:26-3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16기생에 수료증 주는 순서를 가졌으며 정성기 집사(17기 상담봉사원 회장)의 인도로 상담봉사원 37명의 17기 봉사원들이 전서를 했다. 이날 수료자시에는 정세훈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7기 생명의전화 수료 감사예배에서 바다윗목사가 16기 수료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고국체험학교 모집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제7차 고국체험학교 참가자들을 모집한다. 대상은 미주지역 한인 크리스천 중고등학생들이며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견학하게 된다. 참가비는 2,150달러(항공료 포함).

▲문의: (213)384-5232

평신도 상담훈련교실

풀러신학교와 소금빛상담자연구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상담훈련교실이 4월 12일(금)부터 8월 23일(토)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풀러신학교 페이튼 홀 303호에서 열린다. 정원은 30명이며 등록비는 120달러.

▲문의: (626)340-8105

사회복지조사 수강생 모집

한인타운연장자센터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취업 진출의 길을 여는 사회복지조사 양성프로그램인 제1회 사회복지 조사 수강생을 모집한다. 입학 자격은 영어해독 가능한 18세 이상의 남녀로 취업결격사유나 범죄기록이 없는 면접시험 합격자이다.

▲문의: (213)739-7877

HOPE REGAINED 2013집회 설명회

주님의영광교회, 차세대 영성집회 개최

차세대 영성집회인 HOPE Regained 2013집회를 위한 설명회가 8일 오전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본 교회 교육부 총디렉터이자 이번집회를 담당하는 이희갑 목사는 “이번집회를 열게 된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인교회들은 차세대들 준비시기를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있어 그로인해 나타나는 건 차세대들의 이탈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목사는 “이번 집회로 차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주강사는 자매대표 김준근 장로로 첫날과 둘째 날 저녁집회를 인도하며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팀과 환돌선교회의 지저스홀릭밴드가 찬양인

도와 특송을 하게 되며 크리스천 힙합댄스팀인 PPOG 워십팀이 찬양하게 된다. 또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버트윤 목사(What's happening? I want to study), 다니엘박 아주사 퍼시픽대 교수(What you want to be?), 방두식 목사(Let's talk about Sex), 영 리 밴크로프트아메리카 부행장(Seeking God in the workplace), 케네스한 변호사(Legal Issue Consultation), 김윤경 아트테라피스트 등이 주제 강사로 나서 차세대들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이번 집회는 영어로 진행되며 이메일로 등록을 받는다. 이메일 등록 신청순으로 사은품이 증정된다. 참가 및 문의는 hoperegained2013@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차세대 영성집회 HOPE REGAINED 2013 설명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계로번역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cusa@yahoo.com / www.lafc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예배: 오후 2:30 수-금요일예배: 오후 3:30 찬양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413-1600, F: (213)383-2604 3119 West 8th St., L.A., CA 90020 Tel: (213)383-2600, www.laope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찬양)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stark.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수-금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www.scrdm.com Tel: (213)215-8920, Fax: (213)8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Holyway: 영어예배) 주일예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10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대동성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pc.org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3부 평일예배: 오전 11:00 4부 주일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8-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코드 변경),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6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비디오텍스 18세까지: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9044 501 S. Lido St., Los Angeles, CA 90631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썬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찬양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mj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St.,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예배 5부: 오전 2:00(찬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949)854-4010 / E-mail: bel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찬양)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매일)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	브라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어) 새벽기도: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토)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중, 고, 대: 오전 11:00(주일) Tel: (818)925-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00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스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교육부장목사: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c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찬양)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성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독이)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714)445-6200, Fax: (714)445-6207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은혜장로교회: 365번 242번(토) www.gracem.com Tel: (714)445-6200, Fax: (714)445-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9-2940, Fax: (909)389-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ch.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93	트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찬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찬양) 장모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ranstonech.com Tel: 310-370-5500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전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일제히

“남북 7000만 민족 잘살기-국민화합운동 전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아침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확신 가지고 온전히 믿음 생활하게 하소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주최한 '201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2만여명의 참석자들이 낸 헌금은 북한 결식 어린이 돕기에 사용된다. 이영훈 목사의 사회로 예배와 성

찬식, 특별기도회 순으로 1시간30분간 진행된 예배에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11:25-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고난당할 아무 죄 없던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며 “원수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해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는 무덤 문을 헤치고 부활하셨다”고 말했다.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평안해지고 삶을 책임져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축원하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기총은 부활절 선언문을 통해 “남북 7000만 민족의 잘살기운동과 국민화합 새마을운동으로 이 사회

와 교회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한국 기독교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10만 교회, 2000만 성도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총회신학대학원장 이근호 목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세월 희망을 전해 왔다”며 “한국 교회가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배는 CTS기독교TV를 통해 국내외에 생중계됐다.

연합과 분열 반복... 부활절연합예배 역사

한국교회는 1947년부터 60년 넘게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살려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오고 있지만 시대마다 일치와 분열을 반복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는 1947년 4월 6일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서울 남산야와 공원에서 첫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후 1959년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군과 합동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연합예배는 일시 중단됐고 이후 1962년 예배가 곧바로 재개됐지만 72년까지는 진보와 보수가 분열하면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다.

1973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한국교회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10만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일치와 연합의 정신이 구현된 예배를 드리게 됐다. 1977년 연합예배가 분열된 적은 있었지만 1973년부터 1995년까지 20여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부활절예배는 연합운동의 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978년부터 17년 동안은 여의도 광장에서 예배를 드려 여의도가 부활절연합예배의 상징적 장소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특히 1984년 한국교회가 선교

백주년을 맞으면서 여의도 부활절 연합예배는 절정에 달했다. 이후 여의도 광장이 공원화되면서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장충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어 월드컵 대회가 열린 해인 2002년도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이후 2010년까지는 잠실올림픽경기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예배를 개최해 오면서 소위 ‘광장 예배 시대’를 맞게 됐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등 공교회 조직이 부활절 예배를 공동 주관하면서 공적 예배 성격을 회복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한기총이 금권선거에 휘말리고 이단교단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2011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단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드려오고 있다.

비록 부활절 연합예배가 장소와 주관단체는 달리해 왔지만 한국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 민족과 사회를 향해 부활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고 한국교회 대표 연합행사로서 연합과 일치운동을 견인해 가는 원동력이 돼오고 있다.

재스민 혁명 2년 '아랍의 봄' 은 오지 않았다

종교문화연구소, 아랍혁명 2주년 평가 세미나

“2년 전 재스민 혁명 때 아랍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랍의 봄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랍 국가들은 민주화가 아니라 개혁을 거부하는 더 강력한 이슬람화로, 도리어 때때로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종진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 총장은 28일 서울 성내동 오문교회(김은호 목사)에서 종교문화연구소(아랍혁명 2주년 평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18억 무슬림 세력의 도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점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총장은 중동국가들의 최근 현

황을 소개하면서 “만약 아랍의 봄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실패한 혁명”이라고 말했다. 또 “독재자를 무너뜨린 서구나 아시아의 혁명이 서서히 민주화로 발전한 도식이 아랍권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더욱 강경한 어조로 '이슬람교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세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세계 정복을 꿈꾸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 공산화를 시도한 것처럼, 이슬람 원리주의 역시 세계를 알라신에게 복종시킨다는 종교적 명분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또 “이렇게 본다면 20

세기 초반은 민족주의적 집단주의와의 전쟁이었고, 냉전시대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와의 전쟁이었다”며 “이제 21세기는 종교적 집단주의와 전쟁하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랍혁명 후 이집트 상황을 설명한 이집트 기독교인 마태유씨는 “이집트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물러났다는 점에서 혁명은 성공했지만 이집트인들은 개인의 자유, 복지, 사회정의, 부패척결과 경제발전 등 더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선진국들에게 “서구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10여년 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국내에서 살고 있는 그

는 크리스천이 됐다는 이유로 고국에서 미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준태 백석대 교수는 “집권한 이집트 무슬림혁명세대의 행동강령과 이념을 보면 이슬람 정부 구성이 목표임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테러에 의존하는 폭력적 행동들로 말미암아 아랍세계는 물론, 이집트에서조차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석 이란인교회 목사는 “재스민 혁명과 이란이란 주제로 ‘이란이 속히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 4만장 배포

독소조항 반대 기독교대책위, 법안 폐해·문제점 등 적시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이 연합한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들을 적시한 전단 4만장을 전국 200여 지역에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4쪽분량의 이 전단에는 “차별금지법안은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독소조항인 내용들을 합법화·정당화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폐해를 지적하는 글이 담겼다. 또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특히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 명도 발의에 포함되지 않는 등 합의정신이 부재한 절차상 문제와 헌법상 보장된 신앙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한다는 법적·내용상 문제점도 자세히 소개됐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국 교회와 거리

에서 전개 중이다. 또 중앙일간지에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서-동성애자들이 말해 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을 게재하기로 했다. 예장 고신과 합신, 합동, 통합, 백석 등 각 교단 총회와 언론에 성명, 공문 등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목회자들에게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권면하는 등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세계성서화운동본부와 의회선교연합, 국가조찬기도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이 참여한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교계에 약속한 동성애·동성혼 반대 공약을 지켜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를 통한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나 사회공공체와 종교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우려된다”며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깨끗한 교단 선거를 위하여...”

기윤실, 각 교단에 선거법 개정안 전달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올해 총회에 올릴 현의안을 결정하는 봄 노회(지방회) 시즌을 맞아 각 교단 노회와 개교회에 교단선거

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나 총대권 제한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골자다. 기윤실은 이 개정안을 각 교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방침이다.

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변호사는 “사회선거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당선되지만 하면 끝’이란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면서 “교단 선거 역시 금권선거로 당선됐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일이 더 이상 당연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내가 재림예수” 교주 신격화·성경 편파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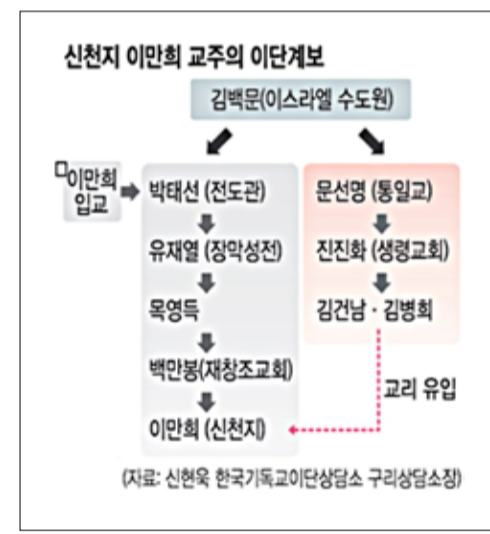
예장합동 이단상담 세미나, 신천지 실체 집중 분석

예장 합동 ‘이단사이버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이대위)는 2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이단상담 세미나’를 개최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실체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이대위는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씨를 신격화하고 비유풀이 등에 신학적 잘못도 많으며 전국 교회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교단협의회 이단대책위원장 강신유(광주 주원교회) 목사는 “신천지에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씨로

지칭하고 있다”면서 “이씨는 자신을 재림예수,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 이 시대의 구원자, 성경에 통달한 사람 등으로 지칭하고 예텐동산이 경기도 과천시이며 신천지 중 14만 4000명만 구원받는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목사는 “신천지에 빠진 피해자를 상담하기 위해선 교육 기간의 정도에 따라 대처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최선의 방법은 이단상담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사로 나선 김창수 박호근 황의



중 목사도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긴자, 14만4000명의 영생불사, 두 증인, 신인합일 등은 성경을 편파적으

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강사는 “신천지 신도를 발견하면 ‘교주가 사망하거나 14만 4000명이 채워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헌금 반환 요청을 하고 종교사기 집단을 떠나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대위 위원장 박호근 목사는 “교회 현장에서 이단 상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정기적 상담 세미나와 전국 순회 세미나를 통해 신천지 위험성을 전국 교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교후원과 교회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광고 디자인업체

이배너라인

수준높은 전문가의 차별화된 **디자인, 가격, 서비스**
동부에서 가장 저렴한 교회 배너 전문업체

e배너라인과 함께 하시면 세련되고 은혜로운 색다른 교회 디자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부 최대 최신형전문 대규모 출력장비 보유

홈페이지 | www.nyebi.com 홈페이지로 오시면 더 많은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현수막전문업체

고퀄리티 초대형 그래픽 출력장비 보유,
편리한 주문, 저렴한 가격, 신속한 제작

인터넷(이메일)으로 주문하고 완료 후
미국내 어디든지 1주일내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차별화된 신속한 서비스

Trade Shows
Banner Stand
Apparel
Outdoor Banners
Backlit Graphics
Water-Resistant Signs
Vehicle Graphics
Die-Cut Signs
Cut-Vinyl Signs
Decals
Outdoor Signs

- 첫 배너 주문시 모든 분께 10%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 10Point 적립시 (배너 1개 주문시 1Point)
- \$100불 상당의 배너를 Free로 제작해 드립니다.
- 2개 이상 주문시 미 전역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교회 배너 현수막, 웨딩 돌잔치, 브로마이드 제작, 각종 간판, X-Y배너, 차량 랩핑(글자 커팅), 롤브라이트, 대형 광고판, 포스터, 브로셔, 전단지 디자인

TEL | 718-631-7969, 718-939-2030 FAX | 718-428-4671
이메일 | nybanner@gmail.com 홈페이지 | www.nyebi.com
주소 | 15-58 127ST. CollegePoint NY 11356

인/터/뷰 김진하 목사 (예수사랑교회 담임)

행복한 목회...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담임24년 신뢰 바탕

“1970년대 서울서 부산을 관통하는 420킬로미터 고속도로를 불과 2년만 만에 놓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10년은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통하고 난 후 보수공사를 곳곳에서 해야만 했지요. 그렇지만 일단 그 고속도로를 통해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하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이제 치하에 1%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이 현재 2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급성장은 당연히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만은 틀림없고 그로인해 현재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 파송 2위국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성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지역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죠. 어떤 경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도 별로인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설교가 부족하면 심방, 대인관계, 신뢰감 무엇인가 있기는 합니다.”

교회 소개

예수사랑교회는 일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문화사역이 강하다. 예배도 분위기가 문화요소를 가미한 현대적 예배형태로 전환했다. 과거 교회문화는 음악이 전부였지만 오늘날에는 찬양도 여러 형태로 활성화 됐다. 예배 시간에

러 큰 실수 없이 목회해온 담임목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행복한 목회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 전망

예장합동 평양노회 소속인 김진하목사는 총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각 노회 세례교인들의 헌금이 정지됐고 40억원 상비부 예산이 정지된 상태다. 그래서 올 총회 선거법이 제비뽑기와 직접선거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교회 전망에 대해 김목사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결국은 질적



김진하 목사 부부

교회 개척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담임 김진하 목사가 집회차 뉴욕을 방문했다. 뉴욕에는 자주 못 온다며 해외집회 자체를 잘 다니지 않고

현재 한국교회 부작용은 급성장과 세대교체가 원인 찬양, 말씀운동, 소그룹운동 거쳐 내실화로 질적 성장 기대

교회 지키기(?)를 하는 편이라고. 24년전 개척한 예수사랑교회를 오늘까지 시무하고 있는 김진하목사는 1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청년시절 기도원에서 3년간 생활하기도 했던 김목사는 군대 훈련소에서 우연히 설교한 것이 계기가 돼 군종이 됐고 제대 후에 총회신학교에 입학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교회개척의 열망이 있었다. 그러나 전도사 시절 담임목사님의 소개로 성가대원이었던 사모를 만나 결혼한 후 성내동에 개척한 첫 교회는 4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아틀란타에 형제 친지가 살고 있었는데 이민까지 생각했다고 김목사는 회고했다.

장모님으로부터 5백만원을 빌려 개척한 교회가 예수사랑교회다. 부활절 첫 주 식구들과 1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둘째 주에 45명이 되고 한 달 만에 100명이 됐다. 10년 후엔 교회건축의 꿈을 이뤘다. 김목사는 “불같이 부어주셨다”고 표현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목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목회자 역량이나 실력도 필요하지만

교회 소식을 영상뉴스로 보여준다.

영상뉴스 제작도 평신도들이 다 하는데 해외선교도 100명 정도의 팀을 구성해 간다. 유치부부터 청장년까지 단기선교단을 구성한다. 6-7년 전부터 이런 형태의 해외선교를 하고 있으며, 군부대 방문도 일년에 4차례하고 있는데 결신자가 많이 나온다. 태권도 등 모든 것에 메시지가 담겨진 공연을 한다.

2005년 박경숙 선교사를 파송한 몽골선교는 울란바토르 주변에 현재 20여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했다. 헌신된 현지인들을 한국 총회에서 공부시켜 다시 현지로 보낸다. 태국에도 음광민 김미영 선교사가 오래전 파송돼 태국 남부지역의 13교회를 돌보고 있으며 사이판 등 2, 30곳에 협력선교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턱없이 부족한 교육공간을 위해 교회 앞 주차장에 제2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조감도가 나와 있으며 2년 내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목사는 시무 장로 23명의 당회와 교인들의 100% 지지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과 아들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희망이 없을 때 기도를 찾아 기도하면서 70년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80년대에도 목회자들의 질적 수준 여부를 떠나 천막에 십자가만 걸면 부흥되는 급성장을 이뤘죠. 교회는 80년 중반부터 찬양, 90년대부터 말씀운동, 2천년 소그룹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으로 현지점은 개척부흥 1세대 리더십의 교체시기입니다. 세대교체 단계에서 겪는 작은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교인들도 무조건 봉사, 무조건 헌신했는데 이제는 계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적입니다. 또 세계적인 흐름도 중국 등 제3국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수적성장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내실화 단계를 거쳐 질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하목사는 총신대와 신대원, 박사원을 졸업하고 페이스신학교(Th. M, D.R.E), 노스웨스트신학교(D. Min)를 졸업했으며 이금선 사모와의 사이에 남매가 있다.

(유원정 기자)

선교지 탐방

GMI선교사관학교 이종식 선교사

멕시코 미전도 인디오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 “GMI 선교사관 학교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샌디에고를 지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3시간 정도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이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선교사관학교이다. 이종식 선교사가 멕시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이곳에서 선교사관학교를 시작하고 현지인들을 양육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졸업생들을 배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지난 3월 23일 선교사관학교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지인들과 교수들이 LA에서 속속 도착했다. 축하객들과 마을주민들,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5명의 졸업생을 축하하며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으면 엔세네다가 나온다. 이곳 엔세네다에는 많은 한인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선교사도 처음에는 엔세네다 부근 떼까페 지역에서 반석교회를 개척해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의치 않은 모습들을 보고 이곳 상킨틴으로 내려왔다. 이 선교사가 이렇듯 외로운(?)사역자로 서게 된 것엔 그만한 사연이 있다고 고백한다.

“스물두 살 때 군대를 가기 전에 어떤 부흥회에서 기도를 했지요. 군대 가서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23년간 잊고 살았지요. 미국에서 와서 잘 살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큰 교통사고가 났고 옛일을 되살리게 됐지요. 그제야 신학을 했습니다.” 그는 마흔여섯에 나이에 신학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멕시코에 첫발을 디딘 것은 2001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멕시코를 들려 사역을 하다 결국 멕시코 상킨틴에 뿌리를 내렸다. 이 선교사는 상킨틴 주변 5개 도시를 찾아 의료사역, 전도지보금 등 사역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넓은 땅을 왜 내에게 안주시나요? 기왕이면 바닷가근처에 땅을 좀 주세요”라고.

그 후 8개월이 지났는데 그 지역에 20년 만에 큰 홍수가 나 두 개의 다리가 끊어지고 80가정이 침수가 됐으나 나라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마을이 마비가 돼버렸다. 그때 이 선교사는 까발루 지역에 물품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LA를 오가며 웃으며 강퍅하며 물품을 넣어놨었는데 그때 웃이 1500피스정도였다. 이 선교사는 창고 문을 열어 2일 만에 옷과 감기약을 나눠주고 후포검질 700포를 벨감으로 나눠줬다. 이 사실을 시장이 알게 됐고 이 선교사를 만나자고 청했다. 이 선교사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 가지 부탁을 들어

주겠노라고 제의했다. 이 선교사는 시장에게 병원과 학교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하며 땅을 달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은 시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시장은 이 선교사를 위해 땅주인 찾기에 앞장서 현재의 땅(약 500헥타)을 기증받게 했다. 땅을 기증받아 천막을 치고 1년 동안 촛불을 키고 살았다. 이 소식을 들은 고신에서 단기선교팀을 보내 건축을 시작했다. “첫 단기팀은 와서 돌 줄은 일을 했어요. 돌이 있어야 콘크리트를 칠 수 있었거든요. 선교 와서 돌만 줄고 간 학생들도 있었어요. 참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건축이 지금은 강의실과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과 기숙사,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신학뿐만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줘 사역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도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이 제 2회 졸업식을 갖게 돼 감격과 감사를 누릴 수 없다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한 후 졸업한다. 이번에도 5명이 졸업

을 하고 그중 한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종식 선교사가 추구하는 선교는 인디오선교라고 설명한다. “센트로 데 멕시코에 가면 지금도 미전도 종족(250개)이 많습니다. 350만 명 정도가 산에 모여서 사는데 이곳 상킨틴보다 훨씬 더 열악하지요. 선교사관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사역하라고 부탁하지요. 가톨릭 순회신부가 있을 뿐 실제적인 종교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그들을 찾아가 셀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외된 종족을 향한 사역을 위해 졸업생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이루기엔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너무 많다.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숫자도 적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통신신학을 꿈꾼다.

기도해야 할 일은 이뿐 만이 아니다. 배고픔과 육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가정관이나 결혼관 정립이 안 돼 있다. 멕시코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인디오를 향한 열정으로 홀로 상킨틴에서 오늘도 땀 흘리고 있는 이종식 선교사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되뇌며 중보의 기도를 올린다.

▲연락처: jong2319@gmail.com

(이성자 기자)



특강을 인도한 정요한목사(미주베델교회 뒷줄 우측 네 번째)일행과 이종식선교사(뒷줄 우측 세 번째)가 현지 신학생들과 기념촬영.

Advertisement for SAM CARE 샘 복지재단. Features a photo of a man and text: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Email: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Advertisement for The One Banquet Hall. Website: www.theonehall.com. Text: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Advertisement for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Website: www.laguesthouse.com. Address: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dvertisement for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Text: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Advertisement for Hanna Flower Shop. Tex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Advertisement for a duplicator service. Text: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Advertisement for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Text: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지사 TEL. 800.347.7057 워싱턴DC지사 TEL. 800.228.2928.

Advertisement for Dynamics World. Text: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빠의 선물 (10)

열매맺는 죽음을 위하여

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 남게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부모는 잘 이끌어야 하며, 교사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며 결혼 전의 자녀에게 결혼 준비 잘하도록 돕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교육 잘 받아서 행복한 자녀로 키우도록 돕고, 부모들이 더 행복한 부부로 살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도 준비하며 살도록 사람들에게 도전 받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죽음에 대한 스승과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 내 사명의 일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후회할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저마다의 사명이 있듯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을 통해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이란 이 땅을 사는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열매 맺는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이 루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한복음 19:30).

예수님은 삶을 통해 크나큰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 받은 사람들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보다는 죽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밀알이 되는 죽음을 통해 오고가는 세대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나는 "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는 남편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을 만나주셨던 주님, 그에게 선행 목자 되셨던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와 함께 하였던 주님,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각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며, 어떻

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답을 찾도록 일깨우시는 주님을 보면서 남편의 죽음을 통해 열매 맺으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나에게 남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고 간 사람!"이라고.

그는 그토록 원하던 강단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병상에 누워 8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고 간 사람이라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굳게 결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가 남긴 말이 아이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그가 뿌린 씨앗이 지금 여기저기서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에서 나는 죽음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열매 맺는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의 길'임을 기억하고 '여행자가 알아야 할 수칙'을 따르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행할 기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일과 관련한 출장여행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미나나 워크숍을 인도하는 강사로 초청받아가는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나는 '여행'이란 말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과 의미를 '인생이라는 여행'에 대비시켜 보았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처럼 속에서 얻어진 '여행의 원리'를 삶에 적용한다면, 분명 열매 맺는 죽음을 위한 나침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행자가 기억해야 할 여행 가이드

정해진 기간 기억하기

어떤 여행이든 간에 여행을 할 때는 정해진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여행기간이 제각기 달라집니다. 나의 여행 스케줄은 내가 정하기보다는 주로 나를 초청하는 단체인 교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삼사일이 되기도 하고 일주일 되기도 합니다. 빠르면 하루 만에 다녀오는 여행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여행'에도 각각 다른 여행기간이 정해집니다. 5년 10년, 20년, 40년, 70년, 80년 모두가 다른 여행기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내 남편에게는 46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행기간은 나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 기간을 알지 못합니다.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세계 종교문화 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파키스탄의 기독교: 투표만이 유일한 해결책

2013년 3월 9일 파키스탄의 펀잡(Punjab)주 주도 라호르(Lahore)시에서는 3천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인 거주지 조셉 콜로니(Joseph Colony)의 기독교 가정 150채 이상을 습격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 청년이 예언자 마호메트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파키스탄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항의시위를 했으며 기독교 학교는 휴교를 하기도 했다. 펀잡 지방은 이슬람 정당 나와즈(Nawaz)가 통치하고 있으며 나와즈당은 최근 선거에서 승리하여 향후 5년간 또 정권을 유지할 예정이다. 나와즈는 파키스탄의 가장 강력한 정통파 이슬람 정당이며 파키스탄에서도 두 번째로 큰 정당이기도 하다.

1997년에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서는 785채의 기독교인 가정 및 4개의 교회와 습격을 받은 바 있고 2009년 펀잡지방의 고라(Goira)시에서도 반 기독교 시위대가 기독교인 가정과 교회에 불을 지르고 7명의 기독교인을 화형시킨 사건이 있었다.

펀잡 주정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총계 50만 루피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그 중 265만개 부도수표만이 드러나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했다. 과거에 펀잡 주정부는 기독교인 밀집지역을 철거한 바 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피해에 항의하며 시위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정부는 불편한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번번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청년층이 많은 라호르에 대해 나와즈 당은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급진파 이슬람교도들의 활동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2012년에도 500여명의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급진파에게 목숨을 잃었다. 펀잡 주 3만 여명의 기독교인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소수민족에게 관대한 자가 당선되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 대통령 무사라프가 귀국하자 탈레반들은 그를 암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버리고 있다.

미얀마: 심해지는 불교도와 무슬림 충돌

지난달 말 미얀마 중심부 맥틸라(Meiktila)시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여러 이슬람교도 모스크와 주택 12채를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32명이 숨졌고 9천명이 집을 잃었다.

주택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교도였다. 이 분쟁은 지난 주 수요일부터 발생했는데, 그 발단은 어느 회교도 상인과 불교도 고객 간의 말다툼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상황을 진정시켰다.

또한 경찰과 관영통신은 지난 주 일요일 버마의 수도 네피도(Naypyidaw) 부근에서도 모스크 한 채와 빌딩 및 주택 여러 채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관영 TV에 따르면, 그 전날인 토요일 밤 버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Mandalay)에서도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모스크 한 채와 회교도들의 주택 48채가 소실되었고, 경찰은 30

명의 피의자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버마의 옛 수도인 양곤 인근 바고(Bago)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회교도들이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바고시의 어느 회교도 상인은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서 살며 경찰의 보호를 기대할 뿐"이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 외에도 민간 보안업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폭동 당시 폭도들이 회교도들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보안업체도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UN은 폭동이 발생하자 특사 비제이 남비르(Vijay Nambir)를 맥틸라에 파견하여 체육관 및 불교사원에 피난 중인 회교도 피해자들을 만나 상황을 조사토록 했다. 특사 남비르는 미얀마정부에 폭동 주도자들에게 대한 조치를 취하고 관용의 미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충고했다.

프랑스 30만 명 남성, 동성혼 합법화 반대시위

2013년 3월 25일 알 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이 남성의 동성혼 합법화 및 남성 동성혼 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자, 30만 명의 시위대가 이에 반대하며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지난 30일 프랑스 전국에서 온 보수주의자, 어린이, 은퇴자 등 수십만 명이 파리에 모여 동성애 합법화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프랑스 하원은 "모든 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4월에 표결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국회의 상, 하원은 모두 현재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의 사회당과 그 연대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본 시위의 주도자들은 국가가 전통적 천주교 국가인 프랑스의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하여 남성 동성애자 합법화 법안을 거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찰은 관공명소 샹젤리제 거리가 시위대로 인하여 혼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위대의 진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평화로웠던 시위도 수백 명의 청년들이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뚫으려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찰이 성난 시위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위대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예즈(La Marseillaise)"를 부르며 올랑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많은 프랑스인들은 이 시위가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실망과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30만 명의 시위대 중 단 두 명만이 체포되었으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반(反)동성애자들은 핑크색 상의를 입는데, 이 날 시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핑크색 상의를 입고 시위에 참여했다.

올해 1월에도 프랑스 국회는 동성혼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허가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거센 시위로 인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이 사회당이 의회 다수당이므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며 국민의 대화도 거부하자 프랑스인들은 더욱 분노했다. 지난 30일 남성 동성혼 합법화 반대 시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자들은 동성혼 합법화가 어린이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물론 사회불안도 야기할 것이라 한다.

한국 교회속에 뒤틀린 성령운동

신사도 운동이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국교회를 뿌리부터 갈아먹고 있다.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복음은 신비한 체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거짓 부흥을 사모하게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비 성령론과 무속적 신앙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고 있다

진실된 성령운동으로 바른 영성을 노리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성경, 찬송가 각종 기독교서적 전문 취급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예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목사님, 성가대, 성가대,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양 선물용품, 시정/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이중통역기

목사님, 박사, 풀업기, 성가대, 인공위원, 드레스/강장영복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기념품
헌금봉투, 주보, 각종 기념품 주문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소강대상 ●강대상 ●헌금함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확 바뀌고 달려진 기능!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 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등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불빛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전문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동시 자유로운 바퀴(360도 회전) 용량(17리터) 1톤급 신년특별 할인세리 - 성교사 시력보조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2)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 교회 기독교 교육의 그 네 번째 성격,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민족의 신앙적 전통 안에 존재하는, 우리 자녀들의 성숙을 함양시키는 긍정적인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적 신앙 전통 안에는 우리 자녀들을 더욱 성숙하게 해줄 많은 긍정적 자산들이 있습니다(물론 부정적인 모습들 또한 있는 것이 아니며, 제가 긍정적이라 말씀드릴 자신들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입장에서 따라 다양한 해석들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성경 중심적 신앙교육"을 다룰 때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긍정적 자산들은 대표적으로 예배, 전도(선교), 그리고 기도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열심 또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

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과 열정의 예배는 한인교회의 모습들에서도 동일하게 목도되어 왔습니다.

물론 앞서 "예배 중심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 지적했듯이, 힌겨운 이면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모이며 그렇기에 더욱 뜨겁게 예배드리며, 그 안에서 위로 받고 위로하며 치유받고 치유하는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열심과 열정의 예배"라는 우리 민족의 신앙적 유산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며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진리를 실제 삶에서 현실화 시키고 공동체적으로 실천해온 바로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자녀들의 참된 성숙을 위해 그들에게 꼭 전해줄 여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는

이야기 시키는데 일조를 한 어른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예배들을 개발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파위가 있는 예배를 경험토록 훈련시키고, 이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에는 이미 더욱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계시고 실행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터이나, 잠깐 일례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들을 고안하여 어른들의 열심과 열정의 예배하는 분위기와 태도 등을 경험케 하여 긍정적으로 내면화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토요일 새벽예배 시리즈 혹은 음모 밤 집회 시리즈를 기획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다른 교회의 유스집회나 청년부 집회에

이해 동의 바탕 "열심과 열정의 예배" 방식 발굴 영적 파워 있는 예배의 긍정적 경험과 훈련 필요

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 신앙적 자산들이라 함은—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한다고 믿는 자산들—"열심히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 "열심히 뜨겁게 전도(선교)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사실 이외에도,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의 지조, 가난하고 억눌린 민초들의 삶을 받아 안는 사랑, 그리고 민족 발전을 위한 적극성 등의 자산들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탁월한 종교성이라 칭, 목회자들에게 대한 진실한 존경 등 긍정적 자산들이 될 만한 다양한 특징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민족의 세 가지 대표적 신앙 자산들 중에서 "열심히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예배로 모이기에 열심인 신앙공동체를 또 찾아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들만큼 그 예배들 안에서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표출하고 거대한 영적 인 파워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또 찾아보기란 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모여 드리는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 그리고 구역예배 등과 부흥집회, 수련회, 그리고 절기예배(성금요일예배, 부활절예배, 성탄절예배, 성탄절예배,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 등)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모여 뜨겁게 예배드리는 크리스천

것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의 경우 소위 "쿨"한 예배를 선호하기도 하거나 또는 주일집회 외에 주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새벽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 몰이해 혹은 무관심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주류 기독교의 예배 문화와 미국 사회 전반의 세속화된 종교문화적 풍토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사역자들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즉 현존하는 예배들이 주로 어른들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모이기에 힘쓸만한 그러한 예배들을 개발하고 제정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으며, 또한 열정적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인가?"에 대해 더욱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전통의 전수를 어렵게 만드는 현재의 우리 자녀들의 예배문화들과 이를

참여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역자들은 이 일을 위한 전술적인 세심함 또한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고집 없이 그대로 답습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위도 없고,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세대간 갈등만 야기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미 자신들의 예배문화가 세워져 있는 유스 친구들의 경우에는 우리 어른들의 예배문화들을 그대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해와 동의의 바탕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우리 민족의 열심과 열정의 예배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들이 담고있는 영성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그들만의 방식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독려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모이며, 뜨겁게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는 한, 영어 찬양을 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신앙유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우리 민족의 "열심과 열정의 예배"라는 신앙적 유산을 전수하는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자녀들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길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계속)

매일가성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죽음의 의미를 바꾸라(요11:1-16)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맞으시면서 베다니로부터 도음요정을 받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는데 왜 베다니로 가야 하십니까? 라고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가자고 하시고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가자!"고 투덜댔습니다. 잠들었으면 알아서 깨어나겠지요...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이 "잠진다"고 표현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오라비가 죽었다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기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되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병들과 죽음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화 부활 신앙(요11:17-44)

수천 년 역사 속에 모든 물질문명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다 죽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서 죽음이 이후에 대해 대담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이 죽음을 이후에 대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은 죽음과 더불어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헬라어로 "생명"이라는 단어는 두 개입니다. 푸쉬케는 코에 붙어있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고 조에는 부활의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생명(조)만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수 한 사람이 중요함(요11:45-53)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모여서 고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던 그를 죽여버리면 나라가 조용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한사람쯤은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희생물의 이론(Scape goat)"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쁜 여정에서도 한사람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다루셨습니다. 당시 교회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실한 한 사람보다는 다수의 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당대에 모두가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바쁜 여정에서도 한사람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다루셨습니다. 당시 교회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실한 한 사람보다는 다수의 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당대에 모두가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목 향기로 가득한 삶(요12:1-11)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6일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풍성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3가지 향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감사의 향기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평생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죄와 허물도 죽었던 우리도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의 감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향기입니다. 둘째는 마르다의 감정의 향기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따를

리면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천국비유 말씀에서 섬김이 양마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는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희생의 향기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소중한 옥함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귀중한 옥함을 깨뜨리는 헌신은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는 자입니다.

금 예수님의 진정한 힘(요12:12-19)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에 취한 교회들은 사람 숫자와 물질을 자랑하지만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둘째는 말씀과 그 순종함에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약 5:16)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나귀새끼를 타셨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50만 이상의 군

중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망스럽게 나귀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기대하는 힘과 예수님이 표현하는 진정한 힘은 겸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중이 기대한 힘은 로마로부터의 자유와 풍성한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진정한 힘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와 구원을 이룬 생명이었습니다.

토 밀알 신앙(요12:20-26)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24절)로 대답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짐"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며,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어서 땅에 묻힌 밀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이 되어 땅

에 들어가게 될 때 많은 열매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살아서는 자기 육신만을 위해 실컷 쓰다가 죽고 난 후 나머지를 기부하는 것은 잘못 된 개념입니다. 목숨이 있을 때 아낌없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밀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밀알은 죽어 희생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흥동 1670-1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64-490~7000, Fax: (02)264-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02)31-984-2939, Fax: (0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면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02)253-9419, Fax: (02)522-4834 500-170 광교동길 복귀 공립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니다) Tel: (02)2-2643-8553~4, Fax: (02)264-8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13-26호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로마관) VIA DEI QUINTILI 9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양천구 명동3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8,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3동 622-3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0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02)2-998-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 (142-073)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찬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시 이천동 제1지 285 146-7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니다)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신림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Tel: (02)942-888-49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641-24 (151-029)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의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2-842-3536, Fax: (0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86-6579, 새벽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5511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제1지 285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양곡 향림시 상남구 통정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8881, Fax: (02)942-8882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번지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주안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신일동 448-23	청주주노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새벽 (043)273-8114 서울 마포구 수유3동 221-4 (142-073)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A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후 2:00 주일기도회: 오후 9:30(주말) Tel & Fax: (56)2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강사



김성길 목사
• 시온소교회
• 주강사



김종준 목사
• 꽃동산교회
• 주강사



장영준 목사
• 발행인



권태인 목사
• 군포제일교회



황의영 목사
• SBM 대표



현성덕 목사
• 캐나다대회장



이영섭 목사
• 볼티모어교회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김승현 목사
• 풍년포 장모교회



김만영 목사
• 천구들교회



김예언 목사
• 뉴욕발라델비아장모교회



김주경 목사
• AMNOS미니스테리대표

주제 :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 6:4-9)

“Hear, O Israel”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일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9박 10일)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9박 10일(세미나 등록비, 성지순례 제반비용, 호텔 숙박비 포함): **1400불**
* 성지순례 코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감람산, 여리고, 사해, 갈릴리호수 등
* 항공표는 별도 개인 구입
* 4월 9일 예루살렘(Tel Aviv Ben Gurion Airport: TLV) 도착하면 현지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해 드립니다.
- **항공권 문의:** 세계여행사(World Travel Bureau, Inc.)
1-800-777-9136 담당자: 리디아 정
NY: (212)917-0022, CA: (562)403-2277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TEL. (02)583-9136~8 / Fax 588-0709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교회 이름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 외 같은 방을 쓰기원함

관공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평신도	
X명		
소계		
선금	CK#	
잔금	CK#	

본인은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 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잔금을 등록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성지순례 세미나 등록비'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성지에 많은 이민 목회자들이 방문하여 지형적, 역사적 사실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더욱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